아트경기 2021

2021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2021

아트경기 소개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 지역 예술가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미술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트경기는 올해 경기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 42인을 선정하고, 일 년간 5곳의 미술품 전문 유통사업자와 제휴사인 서울옥션 및 오픈갤러리와 협력하여 경기도 각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10여 개의 전시·판매 사업을 선보입니다.

아트경기 사업모델의 독창성은 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창작자와 유통자를 동시에 조명하고 지원하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창작자와 유통자 사이에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작가는 사업자의 전문적인 지원으로 미술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자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사업을 개발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작가와 사업자 간 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기획·지원하고, 이를 통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4시간, 365일, 아트경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경기도 작가의 작품을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플랫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2016년 일주일간 진행한 ‹아트경기 스타트업›으로 시작, '2021 아트경기'는 한 해 동안 10여 가지의 다채로운 사업을 선보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다각화된 미술시장의 형태를 반영, '미술장터'부터 '팝업갤러리', '온라인 사업' 등 과업의 내용과 규모를 세분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미술품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아트경기는 미술품 수요자층 확장과 전문기업과의 협업으로 전략적인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시도합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임대·전시 사업은 로비, 복도 등 사무공간에 미술품을 위치하여 임직원과 방문객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높이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모델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내 대표 경매사인 '서울옥션'과 미술품 렌탈 기업인 '오픈갤러리'와의 전략적 제휴로 경쟁력 있는 유통플랫폼을 지원받아 미술시장에서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과업구분	사업방향	참여규모
미술장터	경기도형 미술장터 개최 및 사업 전반의 정체성(브랜딩) 제시	작가 전원 (42인)
팝업갤러리	도 내외 복합문화시설, 기업 및 공공시설 내 미술품 전시·판매 개최	작가 일부 (10~20인)
미술품 임대	도청사, 공공기관 등 도내 공공시설에 미술품 임대·전시로 적극적 활용 유도	
아트페어	국내외 주요 글로벌 성격의 아트페어에 협력사 부스전으로 참가	
온라인 사업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반영한 비대면 방식의 미술품 전시·판매 시도	
제휴사업	미술품 유통 전문 기업과의 협업으로 미술시장 상생과 유통플랫폼 활용	

‹2021 아트경기 과업구성›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국내외 미술시장은 2021년 초부터 활발한 관심과 높아진 판매성적을 보여주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신규 컬렉터의 급증과 투자 열풍 등도 볼 수 있지만, 기존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온라인 판매 등 급격한 외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미술시장의 노력도 크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트경기는 앞으로도 경기도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작가를 발굴하고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업구분	행사명	일정	소재지	기획
미술장터	아트경기 x 아트로드 77	10. 7 ~ 10. 17	파주	올댓큐레이팅
	신장동 할로윈 아트마켓	10. 20 ~ 10. 31	평택	생강컴퍼니
팝업갤러리	업클로즈(UPCLOSE)	5. 19 ~ 5. 23	서울	(주)아트플레이스
		10. 20 ~ 11. 1		
	Art For Ur Flex	10. 1 ~ 10. 14	부천	칸 KAN
	DMZ 아트페어	10. 28 ~ 10. 31	파주	스튜디오 끼
미술품 임대	공공기관 미술품 임대 · 전시	9 ~ 12월	수원 외	칸 KAN
아트페어	대구아트페어 부스전	11. 4 ~ 11. 7	대구	올댓큐레이팅
온라인 및 제휴	이광기의 Live 경매쇼	3 ~ 6월	온라인	스튜디오 끼
		8 ~ 11월		
	오픈갤러리 x 아트경기 제휴	9 ~ 12월		오픈갤러리
	서울옥션 x 아트경기 제휴	12월	온라인 외	서울옥션

‹2021 아트경기 전체행사 일정›

목차 Contents

사업소개 Introduction 2

2021 아트경기 작가 Artsits

권민경 Kwon Minkyung 8
김다희 Kim Dahee 12
김민희 Kim Minhee 16
김상균 Kim Sang-kyun 20
김소산 Kim Sosan 24
김재유 Kim Jaeyoo 28
김지은 Kim Ji-eun 32
김철유 Kim Cheolyu 36
나광호 Na Kwangho 40
박미경 Park Mikyoung 44
박미라 Park Mira 48
박소현 Park Sohhyun 52
박용남 Park Yong-nam 56
박웅규 Park Wung-gyu 60
박윤주 Park Yunju 64
방인희 Bang Inhee 68
백준승 Back Junsung 72
오자현 Oh Jahyun 76
유혜경 Yu Hae-kyung 80
윤세열 Yun Se-yeul 84
윤진숙 Yoon Jinsook 88
윤혜선 Yun Hyeseon 92

이승연 Lee Seungyoun 96
이연숙 Lee Yeon-sook 100
이윤정 Lee Yoonjeong 104
이채영 Lee Chae-young 108
이태강 Lee Taekang 112
이현정 Lee Hyun-jung 116
임정은 Im Jeong-eun 120
장양희 Chang Yanghee 124
정운 Zung Woon 128
정철규 Jung Choulgue 132
조미정 Cho Mi-jeong 136
조채임 Cho Chaeim 140
조해영 Cho Hae-young 144
최빛나 Choi Binna 148
최은지 Choi Eunji 152
최재란 Choi Jaeran 156
최재혁 Choi Jaehyug 160
최지현 Choi Jihyeon 164
허승희 Hur Seung-hee 168
홍진희 Hong Jinhee 172

2021 아트경기 협력사업자 Galleries

스튜디오 끼 Studio Kki 178
올댓큐레이팅 All That Curating 179
칸 KAN 180
생강컴퍼니 Saenggang Company 181
(주)아트플레이스 Artplace 182

2021 아트경기 제휴사업자 Partners

(주)오픈갤러리 Open Gallery 186
서울옥션 Seoul Auction 187

ARTISTS

2021 아트경기
작가

권민경
김다희
김민희
김상균
김소산
김재유
김지은
김철유
나광호
박미경
박미라
박소현
박용남
박웅규
박윤주
방인희
백준승
오자현
유혜경
윤세열
윤진숙
윤혜선
이승연
이연숙
이윤정
이채영
이태강
이현정
임정은
장양
정운
정철규
조미정
조채임
조해영
최빛나
최은지
최재란
최재혁
최지현
허승희
홍진희

권민경 Kwon Minkyung

1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권민경은 20대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캔버스에 유화를 그려오다 디지털 드로잉의 매력에 빠져 작업 매체를 디지털로 전환, 사진 합성을 이용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다.

2011년 디지털 작업으로 만들어 낸 작품들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과 동시에 영화 VFX 회사에 입사하였고, 6년 간 영화나 드라마에 쓰이는 정교한 실사 배경을 만드는 매트 페인터(matte painter)로 일하였다. 그는 "순수미술 작가라면 으레 느낄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선택한 취직이었지만, 그림 그리는 재주로 돈을 버는 일에 생각지 못한 재미와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퇴사 이후 순수한 창작의 즐거움과 자기 위안을 추구하며 만들기 시작한 'Daydream' 연작으로 2020년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2021년에는 포토 에세이 『우리는 같은 눈빛을 가졌구나 - daydream』을 출간했다.

주요개인전

2021 DAY DREAM_Take it easy, just relax, 갤러리 아리아, 서울
2020 DAY DREAM, 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2011 FAKE TALE, 갤러리아트사간, 서울

주요단체전

2021 안국문화재단 AG신진작가대상 선정작가전, 갤러리AG, 서울
2020 을지아트페어프라이즈, 을지트윈타워, 서울
2020 ASYAAF & Hidden Artists Festival,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French moment› 116.8×87.4cm, digital print, 2020

‹far away› 77.4x116.8cm, digital print, 2020

김다희 Kim Dahee

2

건국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석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 회화학과 학사

불현듯 드러나는 존재로 불안은 긍정과 부정을 오간다. 깊어지면 슬픈 우울이 되고 예측으로 극복되면 또다시 찾아오는 감정으로 끊임이 없다. 하이데거의 현존재(Dasein)란 결론이 나지 않는다. 혼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은 거대한 흐름으로 개인이 가늠하기엔 벅찬 곳이기도 하다. 타인들 간에 의해 규정된 세계, 사회 안에 자신을 객관화하기가 힘겨운 소통의 부재가 된 것일 수도 있겠다. 김다희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러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장르로 회화를 선택했다. 현실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란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부여라 말하고 싶다.

— 신희원(갤러리도올 큐레이터)

주요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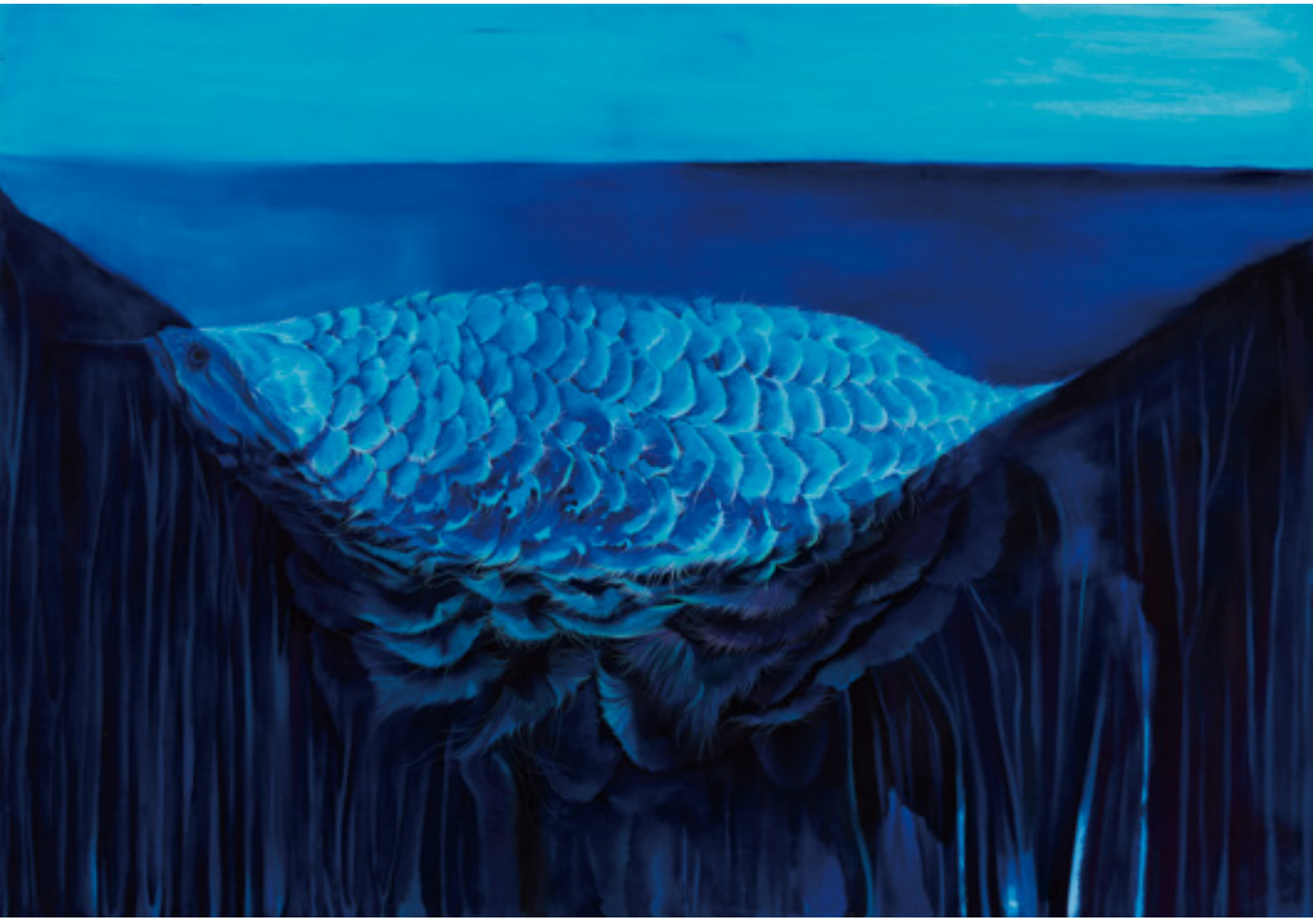
2021 물성의 변이 'blue', 갤러리 도올, 서울
2019 물성의 변이 Properties Variation, 라율 갤러리, 서울
2018 물성의 변이 Properties Variation, 대안공간 눈, 수원

주요단체전

2021 열리고 숨은 세계, 롯데월드타워 BGN갤러리, 서울
2021 GS건설 갤러리 '시선' 선정 작가 2인展, 갤러리 시선, 서울
2020 ASYAAF & Hidden Artists Festival,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물성의 변이› 65×100cm, oil on canvas, 2020

‹물성의 변이_숲› 80.3×100cm, oil on canvas, 2020



‹바다 아래 숲› 116.8×80.3cm, oil on canvas, 2021

김민희 Kim Minhee

3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세종대학교 회화과 학사

김민희는 쉽게 지나치고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사소한 경험들에 집중한다. 순간은 명확한
지점이라기보다는 흘러가는 시간의 일부이며 이의
축적은 과거를 형성한다. 순간이란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곧 과거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민희는 이러한 기억의 일부로
존재했던 감정들을 작품을 통해 다시 현재라는
순간으로 되돌린다. 과거를 다시 현실로 재생시켜
자신이 감각으로 느끼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작가에게는 순간의 감정을 되살리는 과정 자체가
작업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보는 이에게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 김미향(갤러리도스 관장), 「머물고 싶은 기억의
순간들」에서 발췌

주요개인전

2021 김민희 개인전,
한국미술진흥원, 서울
2020 At Table, 아트로직
스페이스, 서울
2018 Scattered Moments,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주요단체전

2020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2019 Grand Paris Award,
Galerie Trois Frères, Paris,
France
2017 전국대학미술공모전,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서울

‹Dinner 3›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0

‹Market› 91.0x116.8cm, acrylic on canvas, 2018

‹산책› 116.8x91.0cm, acrylic on canvas, 2018

김상균 Kim Sang-kyun

4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수료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김상균은 표면 너머에 더 이상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미지들의 외피를 빌려다가 그것들을 다시 엮어 어떤 다른 지지체로 뒤에서 받쳐 놓는다. 말하자면, 그는 이미지들의 수사와 전형에 대한 과도한 중첩을 그럴듯한 손쉬운 그림으로 조화롭게 구현해 놓았다. 하지만 그렇게 임의로 조합된 김상균의 그림은 매끈한 평면에 시선을 오래 붙잡아 두는 대신 이미지들을 덧붙인 흔적들이 역력한 그림의 뒷면에 대한 불편함을 시사하면서, 그 불편함에서 기인하는 또 다른 상상을 환기시킨다. 촌스러운 생각일지 모르나, 이미지의 진실성은 그 표면의 선명하고 명확한 반짝거림이 어떤 힘에 의해 지탱되어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을 때 스스로의 고립감과 진부함을 상쇄시키는 동력을 얻게 된다.

— 안소연(미술비평)

주요개인전

2020 의도적 주의력 결핍, 갤러리 밈, 서울
2018 화려강산, 갤러리가비, 서울
2018 작위,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양주

주요단체전

2020 제26회 제주청년작가전, 제주문예회관, 제주
2019 피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2019 HIAP Open Studios / Spring 2019, HIAP Gallery Augusta & HIAP Project Space, 헬싱키, 핀란드

‹의도적 주의력 결핍 #2-5› 91x117cm, oil, acrylic on canvas, 2020

‹의도적 주의력 결핍 #2-2› 91x117cm, oil, acrylic on canvas, 2020

‹의도적 주의력 결핍 #2-7› 117x91cm, oil, acrylic on canvas, 2020

김소산 Kim Sosan

5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김소산의 작업을 미술의 언어로 기록한다면 '움직이는 오브제의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선 그의 작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보다 여전히 그가 이야기를 만들어나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합리적인 감각의 영역보다도 조금 더 넓은 시야를 염두에 둘 때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무용(無用)에서 유용(有用)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실 김소산의 주된 테마였다. 출품작 '깊은공간'(2019)을 이루는 나무의 일부는 과거 작가의 작업으로 변모했던 나무들의 나머지이다. 작가에 의해 정체성을 부여받은 파편들이 새로운 세계가 되고, 숨이 끊어져가던 공간이 새로운 이야기로 변주되었다. 마음의 장막을 걷고 날아오르면 곤이 대붕(大鵬)이 되듯 그의 이야기는 마음에 따라 무엇으로도 변한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 따라 물아래는 다르게 보이고 몇 발자국 떨어져 바라보는 인간의 삶은 비슷한 패턴으로 정형화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작가는 "방향 전환에 시간을 끌어 화를 돋우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체념보다도 삶이라는 가장 큰 판타지에 몸을 던지고 있다. 그는 카오스(Chaos)의 공간이 아닌 그 안에서 다함께 살아나가는 조화(Cosmos)의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조직을 양생해 나가듯 걸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환희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의 연장에서 본다면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결의 성질이 사조적이거나 동양적이라는 감상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오래되어 보이는 결' 혹은 '고전적 판타지'라는 표현은 어떨까 싶다. 단숨에 유희를 좇아왔다기보다 세계의 곳곳에서 오래된 질서와 조화를 찾아온 자들이 선택해온 그런 행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산은 허구가 아닌 판타지로서 살아있는 것들과 만나가는 과정에 있다. 더욱 먼 곳에서 다양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위해, 심해를 유영하고 곳곳에 이르러 씨앗을 뿌리고 있다.

— 이주희(평론가), 김소선 개인전 ‹탕› 평론 「The Fantasy From SOSAN」에서 발췌

주요개인전

2021 '홍' Hong, 2nd Avenue gallery, 서울
2019 '탕' Tang, 코리아 목욕탕(여탕/남탕), 서울
2018 SCOPE MIAMI BEACH2018, Gallery Younghye, 미국

주요단체전

2021 '물과 바람의 시간', 대청호미술관, 청주
2020 어제 꿈에 보았던 Yesterday, What I saw in my dream, 아트프로젝트울산, 울산
2020 ONE WAY LIFE 기획전, 토탈미술관, 서울

‹흔들림 Shake› 122x116.5x12cm, acrylic on wood, motor, stainless, spring, 2019

‹Blue flower planet› 100x100cm, acrylic on wood, aluminum, 2014

‹LUCIFE planet› 75x75cm, acrylic on wood, aluminum, 2014

김재유 Kim Jaeyoo

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단국대학교 서양화과

홍익대학교 회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재유는
주로 주변 풍경에서 느낀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회화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작업하는 장소 인근의 장면을 그린다. 폐쇄된
도로나 염전, 중단한 개발 등 멈춰있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그림에 담으며 석산과 그 주변에 멈춰선
공사 현장, 그리고 오가는 길에 마주한 동식물도 함께
그리고 있다.
인공과 자연, 파괴와 생성 사이의 풍경에서 느낀
이질적 정서를 물감이 마르기 전에 지워버리거나
다시 정확하게 그리기를 반복하여 아이러니한 곳곳의
풍경을 보여준다.

주요개인전

2018 몽중풍경, 아트 스페이스 반줄, 서울

주요단체전

2020 이연연상,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9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9 Focus on Anyang, 평촌아트홀, 안양

‹드러나 있으면서도 숨겨진 그곳› 227.3x486.3cm, 캔버스에 유채, 2020

‹드러나 있으면서도 숨겨진 그곳 드로잉 16› 33x24cm, 종이에 유채, 2020

김지은 Kim Ji-eun

7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회화과 석사, 미국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석사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김지은은 거대한 도시 풍경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제도와 법규들을 평면이나 설치작업으로 다루며, 현대사회의 '제도화된 풍경'을 역설한다. 자신이 거주하거나 경험했던 주변환경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조사하고 분석해 그 고유의 장소성과 가치를 탐구한다. 개인의 미시적 삶 주변으로 축소되어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일상', 풍경'의 의미는 그의 작업에서 '땅'이라는 맥락을 통해 다층적으로 확장된다. '답사'와 '리서치'를 병행하여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제한된 경험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살펴보는 일련의 작업은 항상 거기에 있어서 눈여겨보거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상의 기념비'들에 주목하고 나무의 나이테처럼 공간에 새겨진 역사와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주요개인전

2020 택지개발자의 도시, 레이블갤러리, 서울
2017 궤적의 재구성, 블루메미술관, 파주
2016 변덕스러운 땅, 갤러리 시몬, 서울

주요단체전

2018 2018 공공하는 예술: 환상벨트,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
2015 폐허에서,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중국
2015 Korean Contemporary: Fusion, 론만도스 갤러리,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모델하우스 화성시 1› 130.3x193.9cm, 린넨에 유채, 2020 (위)

‹화성풍경-바리케이드› 97x130.3cm, 리넨에 유채, 2020 (아래)

‹분양성› 설치전경

‹분양성› 지름 60cm, 캔버스에 유채, 2020

김철유 Kim Cheolyu

8

뉴욕 시립대학교 브루클린 칼리지 순수미술 석사, 미국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학사

김철유는 자신이 꿈을 꾸는 상태, 또는 꿈에 대한 실제적으로 체험하듯 어떠한 활동의 기록으로 작품에 담아낸다. 꿈을 꾸었다는 어떤 의식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꿈을 꾸는 그 현재 상태를 자신만의 정해진 논리적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공간 안 속에서 그림을 그린다. 면종이 위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직선과 곡선으로 그려낸 형상들은 마치 기계로 찍어낸 듯 정교하다. 실제적으로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한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꿈이 가지는 표상적인 상징성과 형상화, 그리고 자신만의 상상에 의한 융합적인 이미지들을 모아 하나의 자신만의 꿈의 메카니즘 세계를 만들어낸다. 괴짜스럽기도 하고, 유머스럽기도 하고, 마치 우주 어딘가를 바라보는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이거나 무의식으로 꿈꾸는, 또는 공상적인 시간이 존재할 수도 있는 여행에 대한 상징화 작업이다.

— 김은정(아트비엔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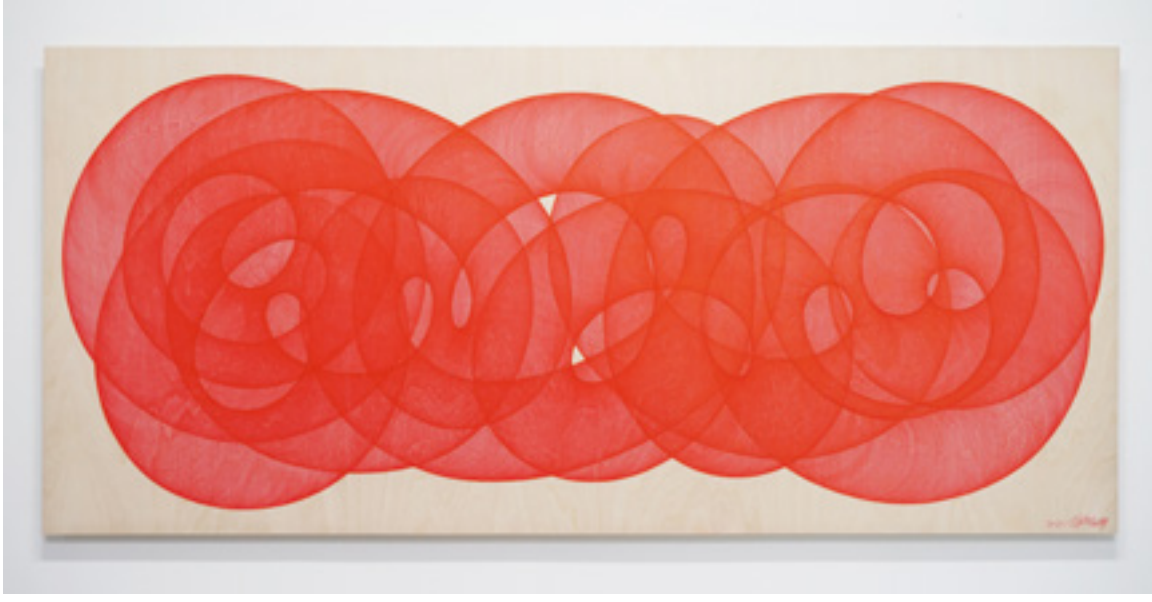
주요개인전

2017 Be High, Journey to Nowhere, 아트비엔, 서울
2013 우주여행, 롯데갤러리, 일산
2012 In & Out Project, 가인갤러리, 서울

주요단체전

2020 The View from Here, 엘리자베스 존스 아트센터, 오리건, 미국
2020 Spring Flash 2020, 더 이쿼티 갤러리, 뉴욕, 미국
2019 Connective Tissues, 스텔라 리플리 갤러리, 퀘벡, 캐나다

‹오딧세이_한 여름낮의 꿈 2› 40x40cm, 자작나무 패널에 펜, 2020



‹Message from Nowhere 1_We are all connected› 55x122cm, 자작나무 패널에 펜, 2020

‹Message from Nowhere 2_We are all connected› 55x122cm, 자작나무 패널에 펜, 2020

나광호 Na Kwangho

9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국민대학교 회화과 학사

나광호는 아이들을 교육하며 아이들이 그린 드로잉과 낙서에 매료되었고, 이를 차용하고 혼성 또는 모방하여 큰 규모로 복제하기 시작하였다. 'Infandult', 'Amuseument', '겨울 호랑이 냄새'를 주제로 시리즈 작업을 선보였고 회화, 판화, 조각,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시도를 가졌다. 현재는 '되먹임'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술인협동조합을 만들고 팀으로 활동하며 지역을 연구하고 인문학적, 사회학적인 이슈를 작업의 내외부에 담고 있으며, 독자적인 형식과 개념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도 운 좋은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한다.

주요개인전

2019 겨울 호랑이 냄새, 뮤지엄 산, 원주
2019 겨울 호랑이 냄새, 영은미술관, 광주
2012 Infandult, OCI미술관, 서울

주요단체전

2019 SeMA 신소장품: 멀티-액세스 4913,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사물학 II: 제작자들의 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5 나는 무명작가다, 아르코미술관, 서울

‹Cape Coat› 227.3x181.8cm, oil on canvas, 2020

‹열린 창고› 80.5×120.5cm, watercolor on arches paper, 2020

‹쉽게 그린 그림› 162x130.3cm, oil on canvas, 2020

박미경 Park Mikyoung

10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전문사
한국에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박미경의 회화는 현실 풍경 속 이미지들을 포착하여 재현하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너지고 해체되는 반복 과정 속에서 끝없이 변화하는 형상들의 얽힘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을 초월한 비현실적인 장소, 자연을 닮았으나 자연과는 무관한 어떤 형상, 하나의 선이 다른 선을 만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을 닮은 이미지 작업은 작가의 작품에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추상과 구상 사이 어딘가를 부유하는 그의 작업은 아마도 작가 자신이 생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그림 그리기'를 수행하는 듯하다.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실처럼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풍경에 가까이 다가가자 모든 것이 환영이었다는 듯이 결국 몇 개의 선들, 붓질의 겹침이 만들어낸 추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회화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일 것이다. 작가의 바람이 있다면, 원형의 파노라마 공간을 그만의 판타지아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주요개인전

2020 어둠이 빚은 풍경, 갤러리 조선, 서울
2018 빈틈을 찾아 길을 떠난다, 갤러리 라이프, 서울
2018 딥다크 판타지, 스페이스55 갤러리, 서울

주요단체전

2017 에덴, 갤러리 라이프, 서울
2015 소마 드로잉: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2015 Summer Love, 송은 아트 스페이스, 서울

‹어둠의 고동› 194x130cm, acrylic on canvas, 2019

‹deep dark fantasy› 130x194cm, acrylic on canvas, 2019

박미라 Park Mira

11

가천대학교 회화과 학사

박미라는 가천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2020년 A-Lounge 갤러리 ‹검은 산책›과 2019년
경기도 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퀀텀점프 릴레이
2인전: 밤물결›, 북노마드 a.space ‹래빗홀›,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Grey Eyes›, 대안공간 미끌
‹개인사 수집›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다음 역은
사이 숲›, ‹작당모의 new party new party›,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지금›, ‹신한갤러리 역삼,
3인의 목격자›, ‹코리아 투모로우›, ‹신화와 전설›,
‹동방의 요괴들›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작품지원 사업에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선정 되었으며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문래창작촌 지원 등의 사업에 선정되어
『색칠놀이』를 출간하였다. 현재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다.

주요개인전

2020 검은 산책, A-Lounge, 서울
2019 퀀텀점프 2019
릴레이 2인전: 밤물결,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경기
2015 래빗홀, 북노마드 a.space,
서울

주요단체전

2020 ㄱㄱ게릴라 영상쇼, 어쩌다
마주친, 수원컨벤션센터;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2020 줌인이아,
예술공간 이아, 제주
2020 작당모의 New party new
party, 공간 TYPE, 서울

‹쌓여가는 위로들› 스틸컷, 3’ 10”, 드로잉 애니메이션, 2021

‹눈물이 사는 마을› 72x60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스위치 온› 16x30cm, 종이에 펜, 2019

박소현 Park Sohhyun

12

시카고 예술대학 패션 학사, 미국

박소현은 드로잉을 기반으로 평면 회화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의 확대와 확장을 통해 보는 것과 인지하는 것의 차이를 실험하고 기존 편견들의 재구성 혹은 해체되는 지점을 다루고 있다. 개인전으로 ‹확대된 세계›(갤러리 월, 2019), ‹XXX›(어라운드 울산, 2020) 등을 개최했으며 ‹별일 없이 산다›(갤러리 밈, 2019), ‹Wavering Map›(탈영역우정국, 2020), ‹당신의 K에 대하여›(SeMA 창고, 2020)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주요개인전

2020 XXX, 어라운드 울산, 울산
2019 확대된 세계, 갤러리 월, 울산
2018 0, 갤러리 숲, 울산

주요단체전

2021 쓱~ 탁! 톡’ 치-, 갤러리 월, 울산
2020 당신의 K에 대하여, SeMA 창고, 서울
2020 Wavering Map, 탈영역우정국, 서울

‹New Pixels› 55x76cm, 종이에 과슈, 2020

‹New Pixels› 50x70.5cm, 종이에 과슈, 2020

‹New Pixels› 55x76cm, 종이에 과슈, 2020

박용남 Park Young-nam

13

카라라 국립미술아카데미 조각과 및 회화과 학사,
이탈리아
홍익대학교 조소과 학사

박용남은 대리석, 조각의 오랜 전통적 재료인 그 돌을 재료로 삼아 이를 일상의 사물로 치환하는 독특한 작업을 선보인다. 그것은 주어진 물질을 익숙한 사물로 변형하는 작업, 환영적 작업이자 동시에 조각과 회화의 경계, 조각과 사물의 경계를 의문시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동시에 비근하고 친숙한 일상의 소소한 사물들에 매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대리석이 지닌 색채와 결을 응용하는 작업이자 사물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상식적인 사고를 순간 낯설게 만드는 초현실적인 전력과 유머를 동반하는 다양한 의미를 거느리고 있는 조각이다. 크기와 질감, 색채와 느낌의 차이와 이로 인해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구상과 추상, 조각과 오브제 등의 경계 또한 애매하게 만드는 무척 흥미로운 작업이다. 이처럼 박용남의 작업은 한국 현대조각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매력적이며 독특한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풍부히 지니고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 박영택(미술평론가)

주요개인전

2019 자연의 자서전, 경인미술관, 서울
2017 Three Works on Show, 정문규미술관, 안산
2014 Young Nam Park Exhibit, 레이번 하우스 아트갤러리, 왕가레이, 뉴질랜드

주요단체전

2015 Stone works today, 김종영미술관, 서울
2014 오사카 아트페어, 오사카, 일본
2013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강정보디아크광장, 대구

‹사랑(명란젓)› 21x30x8cm, 대리석, 2017

‹심연(불가사리)› 16x16x23cm, 20x20x4cm, 대리석, 2017

‹지렁이는 케이크를 좋아할 거 같다› 22x22x21cm, 대리석, 2017

박웅규 Park Wung-gyu

14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 분야 석사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 전공 학사

박웅규는 작업을 통해 '부정성'에 관해 이야기 한다. 늘 부정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침투되고, 또 어떻게 해소되는지 궁금해왔고, 좀 더 정확히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하는 가 이다. 작가는 작업을 통해 그 '부정성'을 이해하기 위한 패턴화 또는 도식화 작업을 시도한다. 동양화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평면 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점차 그 소재와 표현의 층위를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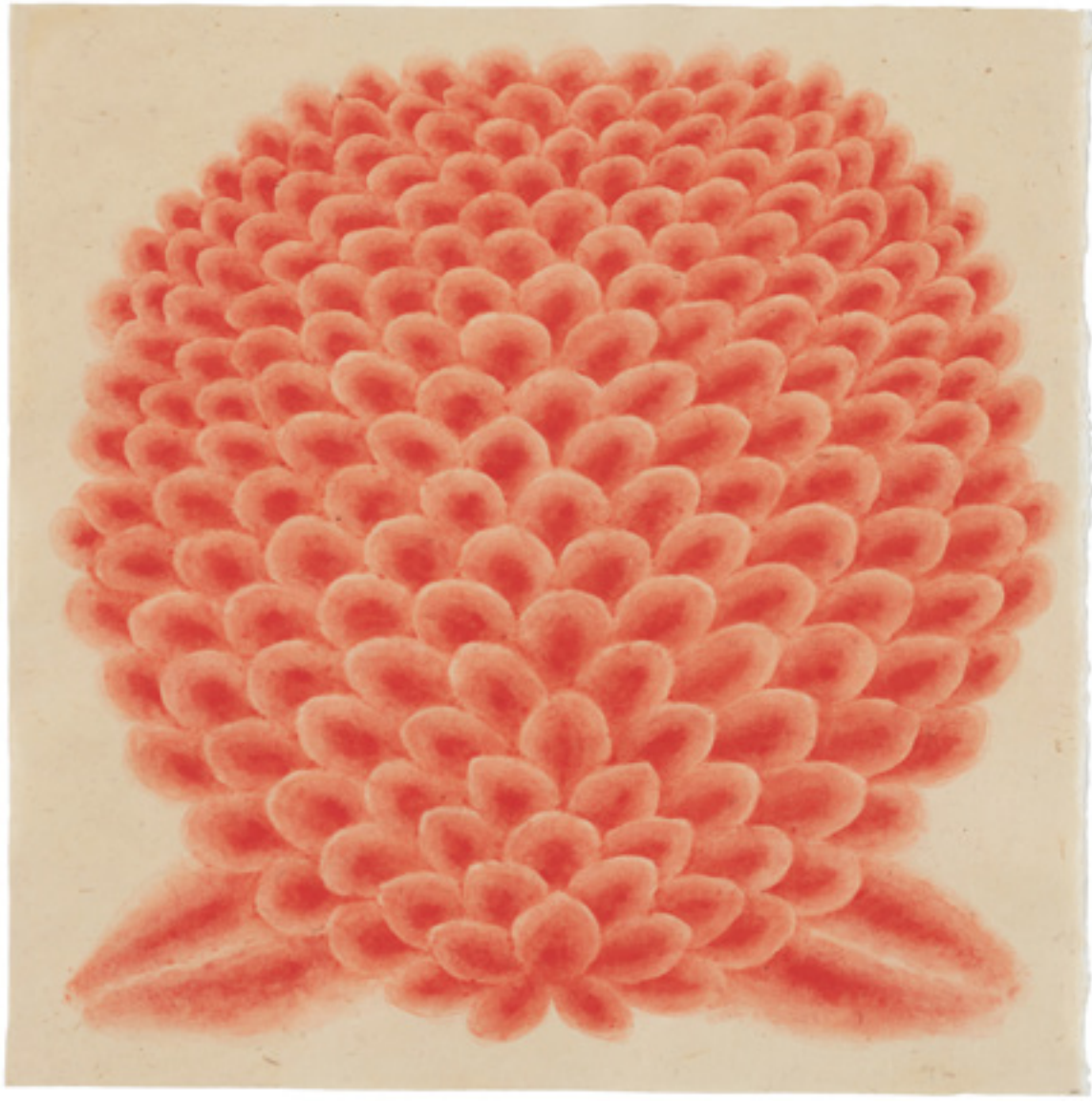
주요개인전

2018 검은태양, 온그라운드2, 서울
2017 벌레와 성자, 스페이스 니트, 서울
2016 모조교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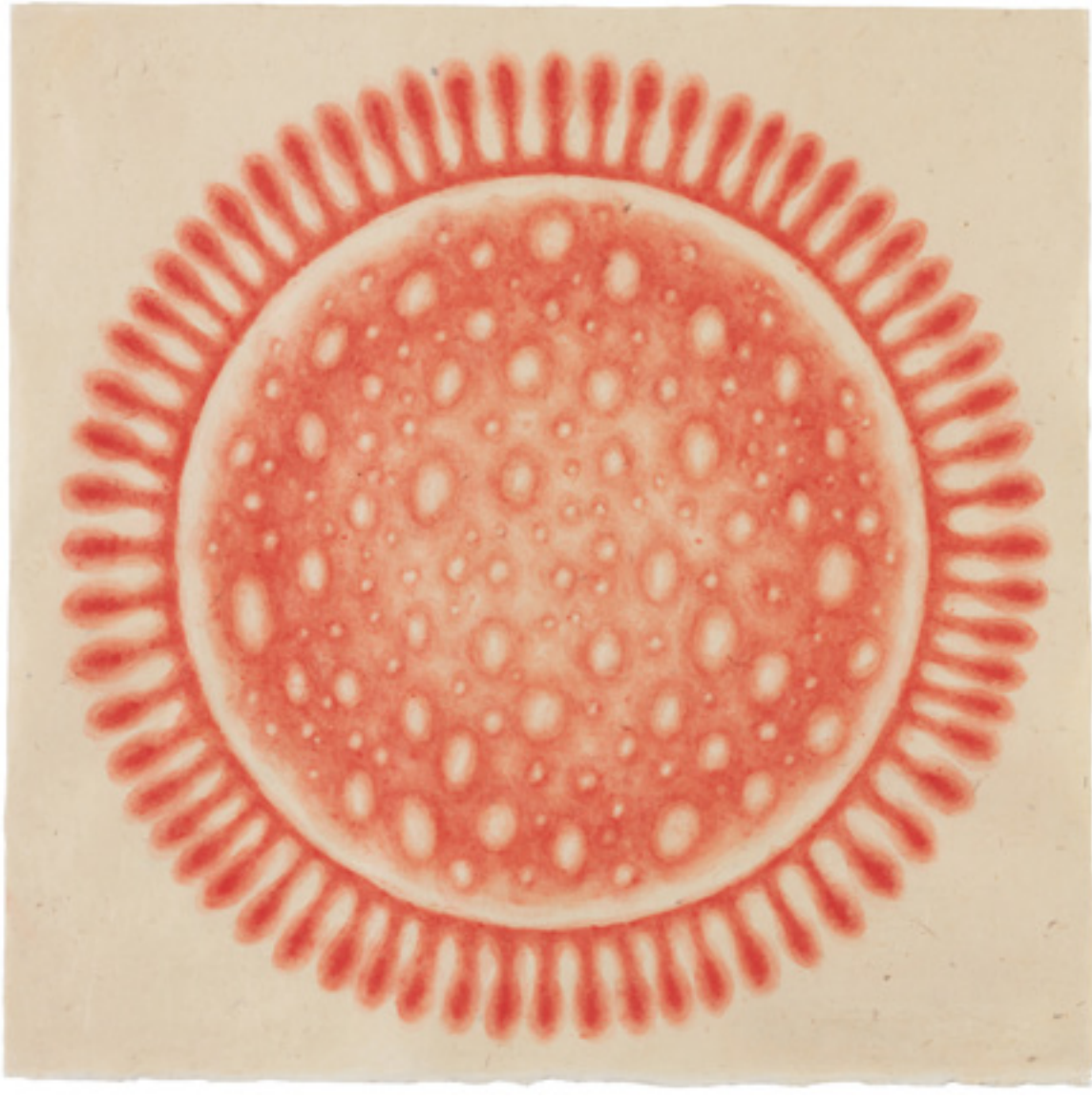
주요단체전

2019 2019 경기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生生化化): The Art of Possible: 가능성의 기술,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2019 Frequency of magic, 아웃사이트, 서울
2017 걷는 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Dummy No.57› 67x48cm, 종이에 안료, 2020



‹흉 No.15› 48x48cm, 종이에 안료, 2020



‹흉 No.16› 48x48cm, 종이에 안료, 2020

박윤주 Park Yunju

15

바우하우스 대학교 공공미술과 및 새로운 현대예술의
책략과 석사, 독일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과 학사

박윤주는 국내외 활동을 통해 주목 받는 작가이다.
그의 예술적 가치관은 예술을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 그리고 자기 소구적인 태도로 나타나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의 작가 개인에 대한 밀도 있는
몸짓으로 드러나곤 한다. 박윤주 작가는 그동안 장단기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공공미술(설치 퍼포먼스)과
소설기반의 영상작업을 해왔다. —중략— 한편 박윤주
작가는 예술적 완성도 면 못지않게 삶에 대한 성실성을
담보한다. 척박한 환경이지만 예민한 감성으로 작가
자신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여정에 놓인 서사를
짚어낸다. 매우 섬세하게, 지적으로.

— 홍경한(평론가), 서울여성신문사 추천글(2017)

주요개인전

2021 박윤주 개인전,
금호미술관, 서울
2019 보겐라움 에피소드,
무지개방 스페이스,
칼스루에, 독일
2016 자유로운 제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핑크투브라운› 스틸컷, 싱글채널 비디오, 13' 50", 2015

‹노인과 바다› 스틸컷, 싱글채널 비디오, 16' 30", 2021

방인희 Bang Inhee

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Multiple art & technology 박사 수료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과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방인희는 옷과 기억을 병치시킨 이미지를 통하여 여성의 삶과 욕망을 '기록'한다. 그녀에게 옷은 삶의 연장(instrument)이자 확장(extension)이다. 초기작에서 포착되는 옷과 관련된 기억, 몸과 옷의 관계, 옷에 묻은 얼룩과 주름 등은 오랫동안 사용된 사물에 기입된 흔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유발시킨다.

방인희 작업의 핵심 중 하나는 여성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여성과 관련된 이미지를 동시대적 판화로 완성하는 데에 있다. 또한 그녀의 작업이 갖는 특정적 성격은 무엇보다 여성의 시선에 있다. 작가는 여성을 대표하는 표상인 의복과 그것의 이미지를 사용해 가깝게는 자신의 어머니의 기억부터 고전미술까지를 가로질러간다.

— 정현(미술평론가, 교수), 방인희 2016 개인전 ‹발췌된 장면› 서문 일부 발췌

주요개인전

2021 창과, 거울, 더스테이힐링파크 나인스도어, 가평
2016 흔적과 기억을 통한 사유_ 발췌된 장면, 갤러리 그림손, 서울
2014 타인의 기억들이 생성하는 이미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주요단체전

2021 포스트프린트_2021, 김희수아트센터, 수림문화재단, 서울
2020 모스크바 한국현대판화전, 모스크바, 러시아
2020 가평아트페어, 더스테이힐링파크, 가평

‹푸른 기억› 63.5x52cm, pigment print and collagraph, 2021

‹American Beauty› 165x110cm, pigment print and collagraph, 2021

‹The black dress› 106x60cm, pigment print and collagraph, 2012

백준승 Back Junsung

17

수원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남양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백준승은 자연과 도시의, 시골과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가진 양면성에 즐거움을 느낀다. 14살 때 처음으로 화가의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붓을 잡아들었고,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수채화의 다양성과 작가층이 작은 국내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해외로 눈을 돌려 꾸준히 해외에서의 전시를 가졌고, 'GAWA International Watercolor Contest'에서 'Best Of The Show Award(대상)', 영국 'Splash 22 Winners' 등 해외에서 많은 수상과 해외 저명한 수채화 서적들에도 작가의 작품이 선보이게 되었다.

대한민국수채화공모대전, 강원미술대전 등에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으로 역임하였고, 현재는 왕성한 작품 활동과 더불어 한국미술협회 주관의 미술교육원에서 수채화 강의와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개인전

2021 서경갤러리 초대 개인전, 서경갤러리, 서울
2020 WALKING, 서울갤러리, 서울
2020 백준승 개인전, JM갤러리, 성남

주요단체전

2021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벡스코, 부산
2020 Art Revolution Taipei, 타이페이 뉴 아트페어, The Song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 타이베이, 대만
2020 Fabriano In Acquarello 2020, 수채화박물관, 파브리아노, 이탈리아

‹Who am I› 53x53cm, watercolor on arches, 2020

‹Walking-Merilyn 2› 91x73cm, watercolor on arches paper, 2020

‹나는 너에게› 91x73cm, watercolor on arches paper, 2021

오자현 Oh Jahyun

18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오자현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직접 쓴 시리즈 소설을 회화와 영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7년 서울청년예술단 아티스트 그룹 '공원'의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유행, 악성재고 등의 키워드로 페이크 다큐와 퍼포먼스를 함께 하며 시장경제 구조에 대한 의문들을 본인의 세대들만의 감수성으로 작업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소위 '힙(Hip)'한 거리와 상권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바라보며 자본의 움직임보다 장사를 하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심리를 상상하고 연구한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가상공간 속 인간관계에 대한 관찰과 이해에 관심을 갖고 작업하고 있다. 소설을 쓰고 회화와 영상으로 소설의 내러티브를 재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주요개인전

2021 불안한 소설의 풍경, tya 갤러리, 서울

주요단체전

2017 악성재고, 유행의 틈새,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2017 깔세: 재고의 여지, 갤러리 시즘, 서울

‹오후 2시› 90x72x2.5cm, oil on canvas, 2020

‹버스 정류장 앞› 112x162x2.5cm, oil on canvas, 2020

유혜경 Yu Hae-kyung

19

건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건국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과 학사

유혜경의 작업은 '갈 수 없으니 자연을 실제 공간 안에 들여와 이상향을 즐기고자' 하는 헤테로토피아적 유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 내부에 자연(산)을 들여오는 일종의 차경(借景)으로써 현실 속에서 이상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와유(臥遊)를 영위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작가에게 있어 자연은 초탈해야 할 대상이나 속세와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닌 '놀이의 공간'이다. 이는 세상과 분리된 은거의 공간도 아니고, 수양을 위한 사유의 공간도 아닌 오로지 유희를 위한 유쾌한 가상의 공간인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현실의 공간에 거대한 산을 들여오고 그 깊고 험준한 골짜기와 봉우리에 암벽 등반을 하거나 다양한 양상의 유람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피규어처럼 등장시킨다.

'眞景' 연작에 등장하는 거대한 '석가산(石假山)'과 '제강(帝江)'이란 존재는 각각 '이상향'을 상징하는 모티프이자 창조의 영감을 주는 '뮤즈(Muse)'로서 놀이와 유희의 대상이 된다. 작업하는 과정 전체가 놀이인 것이며 그림의 감상자는 작가가 가공한 사유의 공간을 통해 작가의 정신적 경험과 유희의 즐거움을 공유하게 된다.

2020년,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사태를 관통하며 작가가 겪는 외부의 자극들은 고스란히 작업에 녹아들었고, 전시를 통한 관객과의 소통이 더 절실해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말한다. 그는 "예술은 자의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서술"이라 말하며, 개인적으로 응축되었던 작업의 에너지를 작품을 통해 분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예술 에너지를 통하여 코로나 피로감으로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여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본다.

주요개인전

2020 眞景_놀이하는 인간 Homo Ludens, 갤러리도올, 서울
2020 HOMO LUDENS, 롯데타워 BGN갤러리, 서울
2019 山海經 산해경: 상상여행, 수하담 아트스페이스, 판교

주요단체전

2021 GOOD AFTERNOON_낮에 뜨는 달, 배렴가옥, 서울
2021 The Next MEME in Insadong,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20 상상을 봄, 롯데월드타워, 서울

‹眞境_muse를 찾아서› 110x110cm, 장지에 채색, 2020

‹眞境_달콤한 시간› 60x100cm, 장지에 채색, 2020

‹眞境_Homo Ludens› 162x130cm, 장지에 채색, 2020

윤세열 Yun Se-yeul

20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전공 박사 수료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윤세열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인지되어 있는 기존 산수(山水)의 개념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유희나 휴식의 공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현대인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을 담아내었고, 이를 '도시산수화(都市山水畵)'라고 칭한다. 비단에 먹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시간의 흐름을 작품에 표현하고자 오리나무 열매를 달인 노란 물로 비단을 염색하기도 한다.

화폭에 담겨진 회화적 기조방식의 주된 특징은 지극히 섬세한 먹선의 필치들이 교차하며 작고 큰 형상과 문자(文字)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문자들은 작가의 우연에 의한 필연과도 같이 작업 과정 중 의도하지 않게 작품 속에 삽입되는 것이며, 작품 완성 이후에도 한 눈에 쉽게 드러나거나 찾아보지 못하기 일쑤다. 이것은 동양회화에서 문자와 그림은 모필 사용으로 인해 그 연원이 같다는 이치와 같이, 작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작품 제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문자'들은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의 작가의 감정을 뜻하는 '漢字'나, 작품 제작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思考를 통해 발상되는 '문자'들을 삽입하여 화면 안에서 또 다른 나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문자'는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 언어로 통용되는 '문자'가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문자'의 형식을 갖췄으나 누구도 인식할 수 없는 모필로 그리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형, 혹은 '기형의 문자'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감상자뿐 아니라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 본인 또한 그 '문자'의 의미를 모른다.

주요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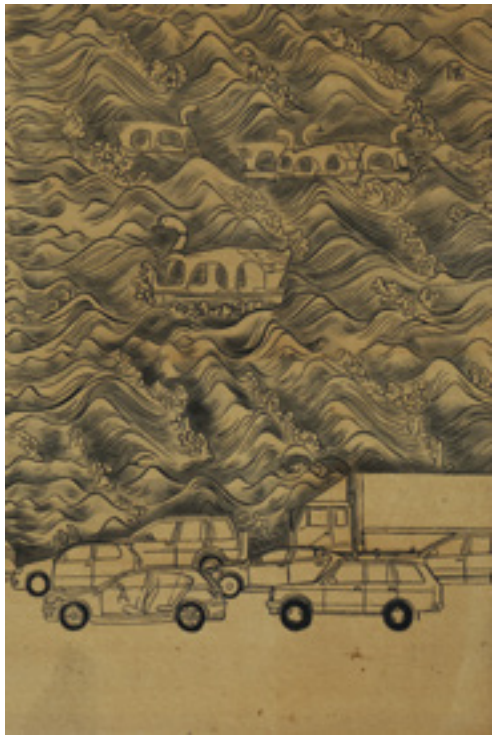
2021 나의 한강탐사기, 아트비트 갤러리, 서울
2021 靜·中·動, 갤러리밈, 서울
2020 Retrotopia, 이목화랑, 서울

주요단체전

2021 컬렉션-오픈해킹채굴,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0 Manifold, www.manifold.art,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경계의 감각 일상을 상생하다, 예술공간 이아, 제주

‹한강유람(서강대교)› 20×30cm, 비단에 먹과 채색, 2021

‹레트로토피아› 60×90cm, 비단에 먹과 채색, 2020



‹올림픽대로› 30×20cm, 비단에 먹, 2021

‹캠핑› 30×22cm, 비단에 먹, 2021

윤진숙 Yoon Jinsook

2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화과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화과 학사

윤진숙은 모든 인위(人爲)를 피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풀을 본다. 내면을 정화한다. 올바르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기 위해 자연을 본다. 작가에게 자연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한 관조(觀照)의 대상이다. 자연을 알아나가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삶의 본질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자연과 인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을 읽는 행위는 책을 읽는 행위만큼 중요하다.

— 이문정(평론가), 윤진숙 개인전 서문에서 발췌(2015)

주요개인전

2020 꽃 피우다, 갤러리 자작나무, 서울; 카페 연 갤러리, 시흥
2017 천천히 스미다, 유디갤러리, 서울
2015 그렇게 흘러간다, 갤러리 자작나무; 공평아트; 갤러리 아띠, 서울

주요단체전

2021 미풍이 불어오는 곳, 갤러리 두, 서울
2019 경남국제아트페어, 창원컨벤션센터, 창원
2018 The Next Big Movement, 키미아트, 서울

‹꽃피우다› 74x81cm, 한지에 먹, 분채, 2021

‹그렇게 흘러간다› 63X112cm, 한지에 먹, 분채, 콩즙, 2015

‹스러지다› 56x75cm, 한지에 먹, 분채, 2019

윤혜선 Yun Hyeseon

22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윤혜선은 주변에서 '바라봄'을 통해 사진들을 수집하고, 모아둔 사진을 또 다른 '바라봄'을 통해 하나의 그림으로 재해석하여 그림을 그린다. 작가는 경험 — 기록 — 그리기를 통해 주변의 환경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다시 그리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버려지고 소외된, 오래되고 시들어가는 상실의 이미지를 좇아 계절에 따라 생명을 가지고 조금씩 변하는, 혹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어떤 것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화면은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버려진 공간을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전 작업에서 내면의 파장을 어떤 장소성이 있는 것보다는 감정 그대로 불확실함을 담긴 미지의 풍경을 그려 왔던 그는 오늘날 보다 더 보편적인 공간으로 보일 수 있는 풍경으로 확장하여 그리는 중이다.

주요개인전

2019 쓰여진 자리, 갤러리 도스, 서울
2017 Unveil, 아트컴퍼니 긱, 서울

주요단체전

2017 한국 · 중국 젊은 모색展, 서귀포 예술의전당, 제주
2016 상상, 번지점프展, 아트컴퍼니 긱, 서울
2016 YCK: Young Creative Korea 2016, 아라아트 센터, 서울

‹덤› 100.6x6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op.5› 70x7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쓰여진 어느 자리 op.1› 90x90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이승연 Lee Seungyoun

23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Narrative Environment
전공 석사, 영국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디자인 전공 석사

이승연은 고대사와 신화, 또는 상상의 극한을 보여 주는 기이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는 '고대'라는 재료를 갖고 미래를 얘기한다. 최근에는 물리학과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졌다 한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철과 나무, 패브릭,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작업한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영국인 알렉산더와 '더 바이트 백 무브먼트'의 아티스트 듀오로 활동했고, 당시의 신화적·종교적·사회적 관심은 오늘날까지 개인작업으로 꾸준히 이어져 온다. 영국 서머싯 하우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역서울 284, 영은미술관, 캔 파운데이션, 베를린 ZK/U 등 국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처럼 영원히 남을 작업을 꿈꾼다.

"나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의 신화를 그려내는 예술가이고 싶다.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삶을 지속한다. 내 작업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알지 못하는 이들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가득하다. 지구와 인류, 삶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에 답해야 하는 게 어쩌면 현대미술이 간과하고 있는 예술가의 사명 중 하나인지 모른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 하지만 내 여정은 계속된다. 멋진 신세계를 향해."

주요개인전

2021 재난의 시대, 몽상 판타지아, 미디어338, 광주
2020 신세계환상곡, 수림아트센터, 서울
2018 선의 환상, SeMA 창고, 서울

주요단체전

2020 수상하고 이상한 기당 원더랜드, 기당미술관, 제주
2020 서울평화문화축제, 평화문화진지, 서울
2019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만리동 우리은행 미디어월, 서울

‹사하라 모래산 속 사람들› 145x145cm, 카펫에 핸드터프팅, 2018

‹당신은 누군가의 바다› 아크릴조각 75점

‹아시아 식민의 추억과 도시의 문명› 설치전경, 132x524cm, 핸드 드로잉 후 카펫에 나염, 2020 (수림아트센터, photo by 팝콘)

이연숙 Lee Yeon-sook

2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
골드스미스 칼리지, 런던대학교, 순수미술 석사, 영국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석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홍익대학교 조소과와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조각과 순수미술을 전공한 이연숙은 일상의 경험과 장소 기억, 인식의 변화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전작에서 소용을 다하고 버려진 일상적 오브제를 통해 개인의 기억을 특정 사건과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최근 ‹Vanished Landscape_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안개는 없었다›(김희수 아트 갤러리, 수림문화재단, 서울, 2020), ‹Running stage_공간 그리고 그 장소›(매향리 스튜디오, 화성, 2020) 등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와 다수의 개인전에서 그 관심사는 사적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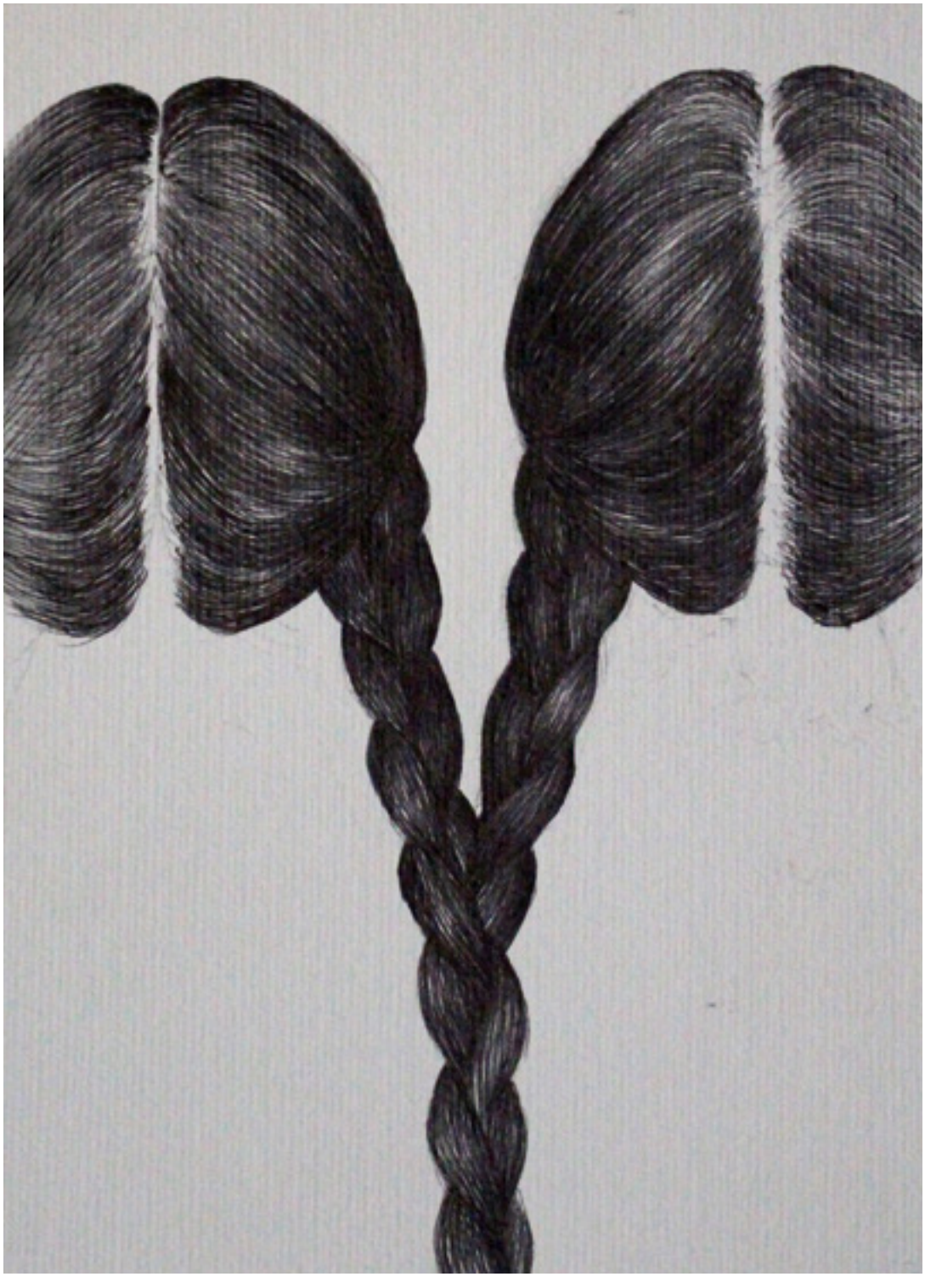
장소가 보여주는 건축적 공간과 축적된 개인사적 내러티브에 주목하고 있는 작가는 영상 미디어, 조각, 공간설치와 퍼포먼스 공연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회 현상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의 삶에 대한 공감각적인 서사 구조를 만들어낸다. 우리들의 기억과 시간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내러티브를 토대로 역사적인 사적·공적인 장소 특정적 설치를 하고 있다.

주요개인전

2020 몸 소리 문,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광주
2020 Running stage_공간 그리고 그 장소, 매향리 스튜디오, 화성문화재단, 화성
2020 Vanished landscape_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안개는 없었다, 김희수아트센터 아트갤러리, 수림문화재단, 서울

주요단체전

2021 메이투데이,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구)국군광주병원, 광주
2021 풍당풍당, 화성문화재단 기획전, 로얄엑스, 화성
2021 업사이클 다시_봄,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



‹상상› 59x42cm, 판화, 2020

‹Mother and mother› 전시전경, 2′ 17″, 2020 (수림문화재단 김희수아트센터, photo by 이시우)

‹공간_멈춤(1~4)› 150x50x4cm each, LED 패널, 프린트, 2020

이윤정 Lee Yoonjeong

2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이윤정은 한지 위에 먹물 묻힌 레이스 끈을 찍어 그 흔적을 겹치며 바위와 산을 그린다. 한지 위에 찍힌 레이스 끈의 흔적은 일종의 동양화 준법인 셈이다. 흔적은 흐느적거리며 쌓이고 쌓이며 단단해지고 바위가 된다. 그 위에 채색과 레이스 끈의 꼬임과 접힘을 강조하는 점들을 무수히 겹쳐 칠하고 찍으면서 바위와 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작가는 특히 바위의 층들에 주목한다. 수 만년에 걸쳐 각기 다른 자연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퇴적되고 압축되고 깎인 모양, 이것이 바위와 지형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한 층은 건조하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온갖 새들과 동물들의 분비물로 만들어졌고 그 아래층은 깊고 깊은 심해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해초와 물고기들의 흔적이 들어있으며, 또 그 아래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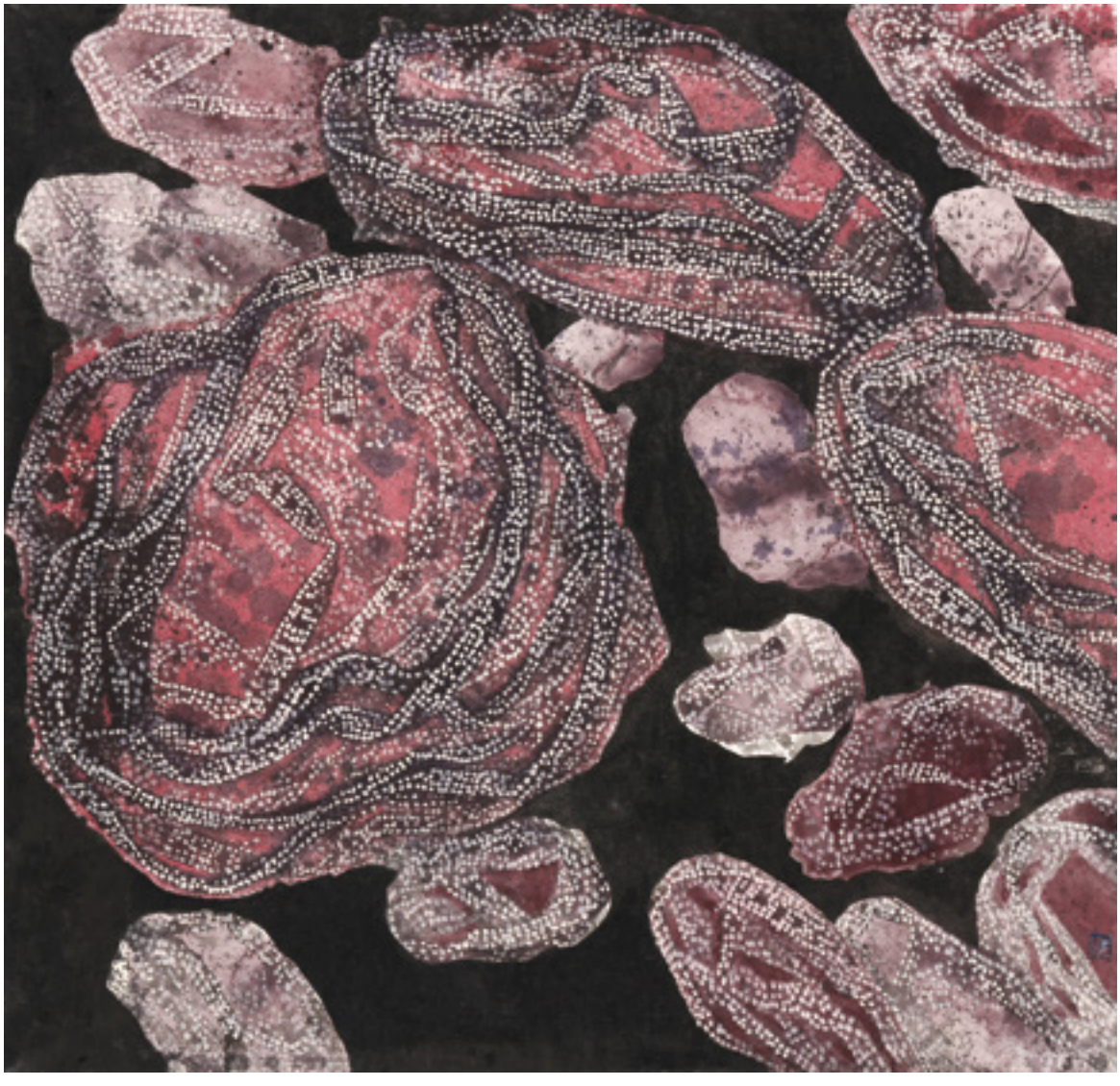
모든 세월의 흔적을 바위의 층에서 본다. 그 층들이 모여서 독특한 바위의 형상을 만든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작가는 질문을 던진다. 각 층마다 새겨진 환희와 슬픔과 절망과 희망, 두려움 등이 모여 각자의 독특한 특성이 된 것은 아닐까? 하며 바위의 층을 볼 때마다 생각해 본다.

주요개인전

2021 채석강, 60화랑, 서울
2019 장생, 영은미술관, 광주
2018 땅의 주름,
갤러리 그림손, 서울

주요단체전

2021–2020 신소장품전,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성남문화재단, 성남
2020 행복팔경,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9 두 겹의 그림자 노동,
세종문화회관, 서울



‹채석강› 63x66cm, 한지에 수묵채색, 2021

‹채석강› 109x145cm, 한지에 수묵채색, 2020

‹기억의 층› 209x120cm, 한지에 수묵채색, 2020

이채영 Lee Chae-young

26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덕성여자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이채영은 항상 걸어 다니는 익숙하고 친숙한 장소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어 보일 때가 있다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그래서
오히려 독특한 정서를 자아내는 장소들을 말한다.

작가는 바로 그 독특한 정서를 자아내는 장소들을
그리고자 한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거리들,
도시의 주택가와 낡은 건물들의 주변의 풍경들 사이
속에서 다른 시간과 공간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형언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 기억,
신체가 받아들인 그 지각, 감각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주요개인전

2019 Hidden Place,
갤러리 세줄, 서울
2017 Dim day, 자하미술관, 서울
2015 The moment,
포스코미술관, 서울

주요단체전

2019 신소장품2018,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성남
2018 ART369,
아트플레이스, 서울
2018 Art & Design 2018:
The Scent of Wood,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이상한 오후› 148x140cm, 한지에 먹, 2019

‹길› 130x162cm, 한지에 먹, 2018

‹섬› 130x162cm, 한지에 먹, 2016

이태강 Lee Taekang

27

서울시립대학교 예술체육대학원 환경조각학과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학사

이태강은 글을 쓰고, 드로잉하고, 만들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읊조린다. 보이는 현상 안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하는 작가는
비유나 상징, 은유가 많이 들어간 시를 읽거나 쓰는 걸
즐긴다.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특별해보이지 않은
비밀들이 작품에도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업에 있어 늘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실험해 본다.
입체, 평면, 설치작업 이외에도 퍼포먼스나 동화책,
일러스트, 소설 등 여러 언어로 이야기해오고 있다.

주요개인전

2020 운풍경[雲風磬], 수하담 아트스페이스, 성남
2020 말이 없는 나라 [NOGOS], Space D, 서울
2016 구름처럼 고래처럼,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서울

주요단체전

2021 Be정상, 아트스페이스 광교, 수원
2020 오! 감각의 나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 고양
2019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 류(流), 청계광장, 서울

‹부드러운 풍경 202001› 126x74x65cm, 혼합재료, 2020

‹비범한 옷(Extraordinary clothes)› 전시전경, 가변설치, 철, 자연석, 나무, 삼배, LDPE, LED, 2021 (아트스페이스 광교, photo by 이태강)

‹속삭이는 말(Whisper)› 20x20x45cm, 혼합재료, 2019

이현정 Lee Hyun-jung

28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목조형가구학 박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예디자인과 목조형가구전공 석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학사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상상과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전하는 이현정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면서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작가는 나무라는 자연 소재에 대한 매력과 조형의 표현 가능성을 탐구한다. 석·박사과정을 통해 작가로서의 인문학적 지식과 철학을 성장시켰고, 작품에 깊이를 더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다수의 국제전과 단체전에 출품하였고, 2011년 첫 개인전인 ‹Furniture & Flower›으로 아트퍼니처(Art Furniture) 작가로서 첫 발돋움 한다. 이 시기 자연을 주제로 작업하던 작가는 두 번째 개인전부터 재료의 새로운 물성에 대한 연구와 나무의 결합을 시도한다. 아크릴과 한지, 한복천(노방)을 작업에 사용하여 새로운 조형 표현의 가능성을 작가만의 조형 언어로 실현하였고, 2016년 작업의 중심축을 이루는 새로운 작업을 선보이게 된다. 중첩된 한옥의 창과 빛에 의해 변하는 창의 색과 그림자가 만들어 내는 조형성을 담은 대표작인 ‘색의 변주(Variation of Color)’는 전통가구와 창작한 노방창을 결합시킨 아트퍼니처 작품이다. ‘색의 변주’는 2016년 공예트렌드 페어 주제관에 초대되었고 2017년 경기도미술관 ‹크래프트 클라이막스(Craft Climax)› 목공예 작가 부스에 초대전시 되었다. 그 이후 많은 주목을 받아 2019년에는 고양시 우수작가로 선정되어 고양아람누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가진다.

2020년 ‹밀라노디자인위크 2020›의 한국공예전 작가로 선정되었고, 한국공예진흥원에서 제작한 영상은 밀라노 푸오리살로네 온라인 플랫폼에 전시되었다.

2021년에는 서울공예박물관 개관전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개인전

2019 고양아티스트 365, 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 고양
2016 블랑블루(Blanc Blue) 호텔페어 개인전, 엠배서더 호텔, 서울
2015 Minimal & Maximal, 빛뜰갤러리, 성남

주요단체전

2021 공예, 시간과 경계를 넘다 – 서울공예박물관 개관전,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2020 밀라노 한국공예전, 밀라노디자인시티, 푸오리살로네, 이탈리아
2017 크래프트 클라이맥스, 경기도미술관, 안산

‹Variation of Color V3› 160x40x163cm, maple, acrylic, nobang, 2016

‹Claire de Lune› 60x6x36cm, maple, nobang, acrylic, 2019

‹Variation of Color› 2019 V2, 80x40x108cm, maple, nobang, acrylic, 2019

임정은 Im Jeong-eun

2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홍익대학교 영상영화과 학사

회화를 주 작업으로 하는 임정은의 'Firecracker' 연작은 2017년 대학원 청구전시부터 시작한다. 학부는 영화를 전공하였지만 회화에 뜻을 품고 회화과로 대학원을 졸업한다. 반짝이고 반사하는 재질의 폭죽을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폭죽 등을 사진으로 찍고 디지털 작업 후 이를 회화로 재현하고 있다. 서로를 반사하고 반사하는 우연한 모양과 또렷하면서도 다시 구분되는 경계에 흥미를 느껴 이 소재를 택하게 되었다 한다. 그의 궁극적인 작업의 목표는 일종의 조형미를 추구하여 좋은 이미지를 도출하는데 있다.

주요개인전

2021 엉킨 빛, Tangled light, Space xx, 서울
2018 Firecrackers, 갤러리탐, 서울
2016 개인전, 더블스페이스, 서울혁신파크, 서울

주요단체전

2020 Hyper Salon vol.2,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2019 Afterglow, 노블레스컬렉션, 서울
2019 VISTART, 비스타 워커힐 호텔, 서울

‹Firecracker 45› 60.6x50cm, oil on linen, 2021

‹Firecracker 34› 45x45cm, oil on linen, 2020

‹Firecracker 46› 50x60.6cm, oil on linen, 2021

장양희 Chang Yanghee

30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판화 전공 박사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판화전공 석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사

장양희의 작업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화두는 '인간'으로, 현재의 작업은 인간정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본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체를 소재로 하여 인간의 실존에 대한 내용을 심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작업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왔다. 작품의 내용과 함께 형식적 측면, 재료와 매체의 사용은 작가의 작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물을 흐릿한 형상으로 나타내고 투명 또는 반투명한 소재의 사용, 간접 매체의 사용 등이 주요한 특징인데, 이는 작가가 생각하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있어 당위성을 부여한다. 또한 설치나 영상작업을 통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타인의 신체가 이루는 풍경에 개입하도록 하여 복합적 시각 체험을 유도하기도 한다.

주요개인전

2019 군중속으로, 갤러리 치유, 서울
2016 그림자_REVEALING, 갤러리 도스, 서울
2014 모호한 존재, 홀앤코너 엠, 광주

주요단체전

2018 판화하다 - 한국현대판화 60년,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6 틈_under the skin, 갤러리 세줄, 서울
2014 The third print, 토탈미술관, 서울

‹CROWD #37, 38, 39› 25x100cm each, laser engraving on acrylic panel, 2019-2020

‹CROWD #30, 31, 32, 33› 45x90cm each, mixed media, 2019

정운 Zung Woon

31

런던대학교, 슬레이드 미술대학 석사과정, 영국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정운은 건축이나 도시의 구조, 형태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와 맞물려 일어나는 미시 현상이나 증후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영상, 설치, 사진 작업을 해오고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 ‹성북도큐멘타6: 공공화원›(최만린미술관, 2019), ‹건축에 반하여 Against Architecture›(SeMA창고, 2018), ‹Level Note One Two›(case-open-close, 홍콩, 2015) 등이 있다. 서울, 군산, 레이크 디스트릭트, 크레타, 런던 등 여러 도시에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요개인전

2017 행운통신, 낙원상가 417호, 서울
2014 동시 작동하는 갈라진 두 개의 풍경, 안국약품 갤러리 AG, 서울
2013 움푹 팬 공간과 목소리들, 창작문화공간여인숙, 군산

주요단체전

2019 Memories in Movement 움직이는 기억, 플레이스막, 서울
2019 성북도큐멘타6: 공공화원, 최만린미술관, 서울
2019 월요살롱-아티스트 토크, 토탈미술관, 서울

‹탄성력› 20x15cm, digital c-print, 2011

‹임시의 구조물들 II-다리› 17.5x20cm, digital c-print, 2007

‹타워› 160x160x400cm, 스틸, 나일론, 네온, 케이블, 2018

정철규 Jung Choulgue

32

단국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서양화전공 박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석사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정철규는 사회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상황들과 중심에 가려져 보이지 않거나 혹은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감춰야만 했던 개인의 서사를 시적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다. 이를 남성복 원단을 비롯한 다양한 재질의 원단위에 실로 수를 놓음으로써 숨겨진 것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또한, 2019년부터 진행한 ‹이름을 지우고 모이는 자리› 연작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이야기를 전달 인터뷰 형식으로 모아 원단 위에 한 땀 한 땀 수놓는다. 이를 통해 축적된 시간과 침전된 의미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렇듯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온,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는 경계에 대해 물음을 가지게 되고, 구축된 경계의 안과 밖에서 각자가 놓여있는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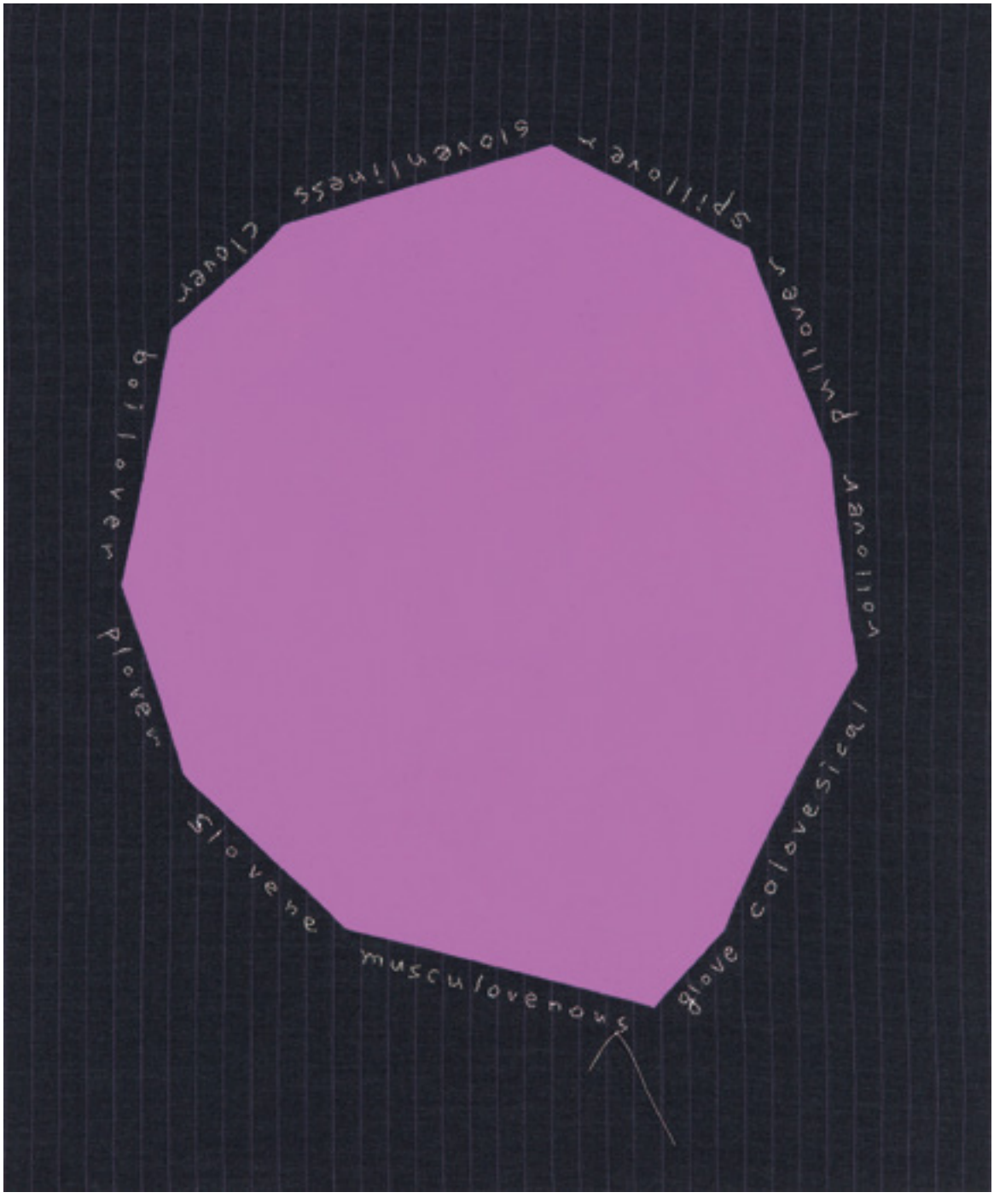
주요개인전

2021 브라더 양복점, 프로젝트 스페이스 영등포, 서울
2018 없는, 오늘_매일같이 밀고 당깁니다, 단원미술관, 안산
2018 귀를 보고 하는 말, 비컷 갤러리, 서울

주요단체전

2021 크리에잇티브 리포트, OCI미술관, 서울
2020 용기는 파도를 넘어, 단원미술관, 안산
2019 그런, 점_선_면,에서,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적절하고 적당한 핑계› 34x165cm, 옥스퍼드 원단위에 손바느질 실드로잉, 2020



‹이름을 지우고 모이는 자리_거봐요, 모든 것에는 사랑을 품고 있어요› 45x38cm, 양복 원단위에 손바느질 실드로잉, 아크릴 채색, 2020

‹이름을 지우고 모이는 자리_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흐르는 것은 참을 수 없지› 45x38cm, 양복 원단위에 손바느질 실드로잉, 아크릴 채색, 반사지, 2020

조미정 Cho Mi Jeong

3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학사

조미정은 사진 작업을 통해 평소 느끼지 못했던 주변 환경 및 일상으로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발달한 만큼 인간의 삶이 질적으로 팽창했는가……?'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하면 그만큼의 잉여 시간이 생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점점 더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연과 인간관계, 산다는 것, 탄생과 소멸……. 모든 게 그에게는 궁금증으로 증폭되어만 갔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늘 현기증을 느낀다. 그러던 중 인문철학서를 탐독하며 모든 현상은 '나'로부터 출발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시인으로서, 음악가로서 활동을 잠시 접고 사진 작업에 몰입한다.

"카메라는 곧 나다"라고 말하는 그는 지금까지 성장하며 겪었던 삶의 무게들을 응축한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 할 때 저절로 '유레카(Eureka)'를 외친다. 물론 매 사진 작업을 할 때마다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보일 듯 말 듯 보이지 않는 답답함으로 '왜? 왜…?'라는 질문과 함께 수 없이 지옥과 천국을 왕래해본다. 그럼에도 그는 "사진 작업은 나의 의무이며 눈물이고 행복이다. 사진 여행은 곧 나를 찾아 떠나는, 나를 만나러 가는 긴 여정이다"라고 말하며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

주요개인전

2021 컨테이너아트랩,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21 주터키한국문화원 공모전, 앙카라, 터키

주요단체전

2021 제 41회 국제 현대미술대전, 홍익대학교 아트센터, 서울
2021 제 42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한전아트센터, 서울
2018 미국 독립기념 33인 초대 한국전, 갤러리 예술공간, 서울

‹Trace of time 01› pigment print, 2020

‹관계› pigment print, 2020

‹무제 11› pigment print, 2020

조채임 Cho Chaeim

34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조채임은 바다를 그린다. 작가의 바다는 끊임없는
관찰과 질문에 의해 작업된다. 바다의 여러 가지 표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조합하여 자신만의 색감과 터치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오랜 시간 회화적으로 탐구한다.
그가 표현하는 바닷물은 생성되어 흐르고, 부딪치고,
깨지고, 부서지며, 사라지는 웅장한 자연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 무형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의
내면을 바라보고, 투영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개인전

2021 WAVE, 경인미술관, 서울
2017 눈을 지그시 감으면…,
경인미술관, 서울

주요단체전

2020 2020년 뉴 뮤지엄 프로젝트,
청담역, 서울
2020 아트프라이즈 강남, 논현동
가구거리, 서울
2019 서울 뷰티인그레이스
아트페어, 예술의전당, 서울

‹Untitled› 97x162cm, oil on canvas, 2021

‹Untitled› 60x162cm, oil on canvas, 2021

조해영 Cho Hae Young

35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조형미술학과 석사, 프랑스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조형미술학과 학사, 프랑스
전남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조해영은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학사를 프랑스 파리 세르지 국립 고등미술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금호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32회 중앙미술대전, 12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0회 송은미술대상에 선정되었으며 금호미술관, 소마미술관, 오산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에서 그룹전을 광주신세계갤러리, 스페이스 K 광주, 아트라운지 디방, 갤러리비케이, 갤러리 룩스 등 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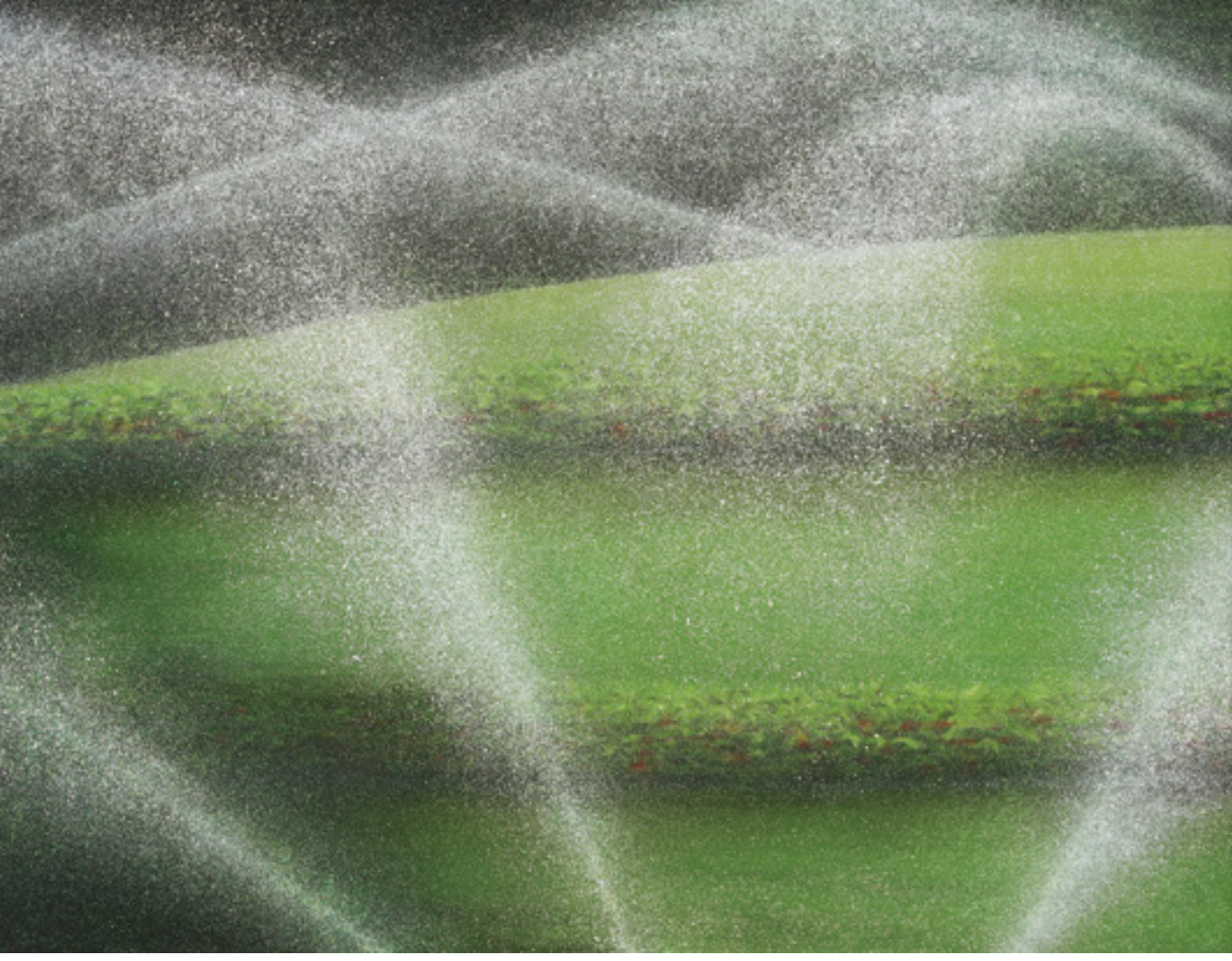
주요개인전

2020 GREEN GRASS, 갤러리 룩스, 서울
2015 GREEN GREY, 스페이스 K, 광주
2014 Cinnabar Green Deep, 갤러리비케이, 서울

주요단체전

2019-2020 바람이 지나간 자리,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9 DMZ, 문화역서울284, 서울
2014 루와얄 섬 레지던시 보고전, 금천예술공장, 서울

‹White Curve 1› 112x145.5cm, oil on canvas, 2018



‹White Curve 7› 91x116.7cm, oil on canvas, 2019

‹Hidden White 2› 72.7x91cm, oil on canvas, 2020

최빛나 Choi Binna

36

비스바바라티 국립대학교 그래픽 아트 석사, 인도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1.
최빛나는 유년 시절부터 주변의 풍경에서 낯섦을 느끼곤 했다. 거리와는 상관없이 일상의 정경이 멀게 보인다는 건, 경외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감정 상태는 아우라와 연결 지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멀고도 가까운 것,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존재의 힘이 바로 아우라이니 말이다. 아마도 최빛나는 풍경을 자연의 숭고함을 품은 세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그에게 풍경은 보기 좋은 경치 혹은 인간의 복합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과는 상이한 어떤 세계와 같다. 최빛나에게 자연은 곧 이상향의 표상과 다름없다. 요컨대 이상은 언젠가 분명히 깨어지거나 훼손되기 마련이다.

2.
최빛나의 풍경은 실재의 재현과는 거리가 있다. 그가 재현하는 것은 자연의 외형이라기보다 그것을 양식화하여 각각의 생명이 가진 어떤 리듬의 형태, 또는 호흡을 찾아가는 행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 동화적 상상력으로 그려진 세계라고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회화는 낮과 밤, 빛과 그림자,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겹쳐진 상태로, 마치 음화와 양화(negative and posotove)가 한데 뒤섞여 작가가 상상하는 세계, 질문 그리고 욕망이 혼재한다.

3
최빛나는 오랫동안 사라진 주변의 존재들을 추모하는 그림을 그렸다. 풍경 위에 정결한 백색도 아니고 침묵의 흑색도 아닌 화려한 색으로 물들인 휘장을 둘러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camouflage)하였다. 그의 그림을 대표하는 장식성은 감정을 숨기기 위한 반어법이자 동시에 잊지 않기 위한 기념물과 다름없다. 존재했으나 사라진 후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존재들을 위하여 흰 캔버스 위에 휘장 풍경이 드리워진다. 무성한 나뭇잎이 우아한 표정으로 바람을 타고 있다. 파란 바다 같은 산이 펼쳐진다. 그 사이에 노랑 봉우리가 눈을 사로잡는다.

— 정현(미술비평, 인하대 교수), 「휘장 풍경」에서 발췌

주요개인전

2019 바람과 아카시아의 날들, 오!재미동 갤러리, 서울
2018 The place where they were, 갤러리도올, 서울
2017 The place where they were, 이정아갤러리, 서울

주요단체전

2021 나는 그리운 바다를 편안한 오늘 번쩍번쩍 헤엄치다, 팔복예술공장, 전주
2020 공생공감,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주
2020 SEMICOLON;, 팔복예술공장, 전주

‹The hill-blue 3› 161.5x130cm, acrylic on canvas, 2021

‹이상한 집› 60x72, acrylic on canvas, 2019

‹The hill-blue 2› 161.5x130cm, acrylic on canvas, 2021

최은지 Choi Eunji

37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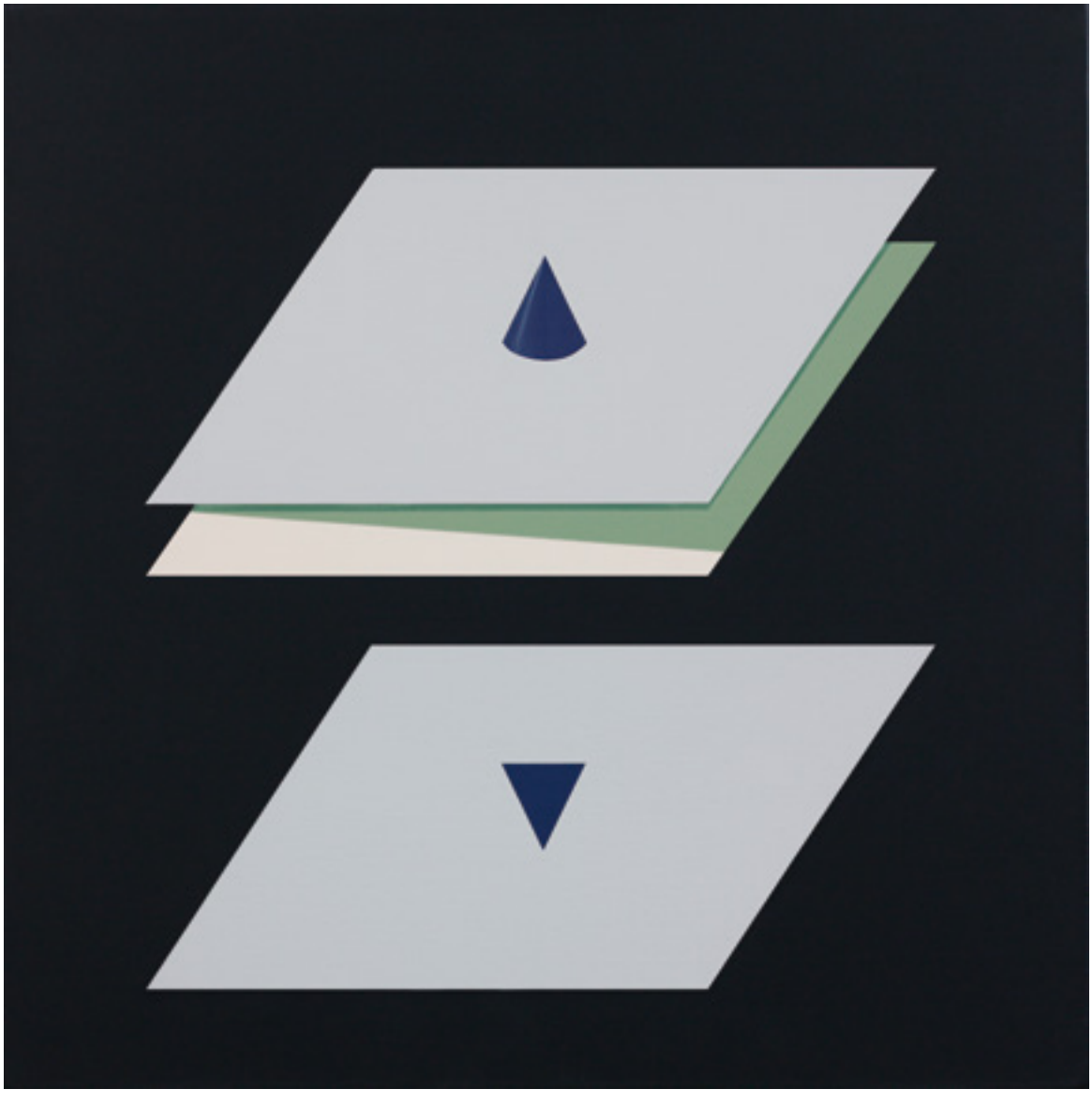
최은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 후, ‹경계_Boundary›(신한갤러리 광화문, 2016)를 시작으로 ‹고양아티스트 365전_Ripple site›(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 2020) 등 몇 차례의 개인전을 통해 도시초상화 연작을 선보였다. 이후 ‹응집하는 눈›(임시공간, 2020), ‹산책자의 방›(무악파출소, 2020) 기획전에서 입체 및 설치 작업을 발표하며 매체를 확장 중이다. 이 외에 워싱턴 한국문화원 2020 OPEN CALL 및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2019)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주요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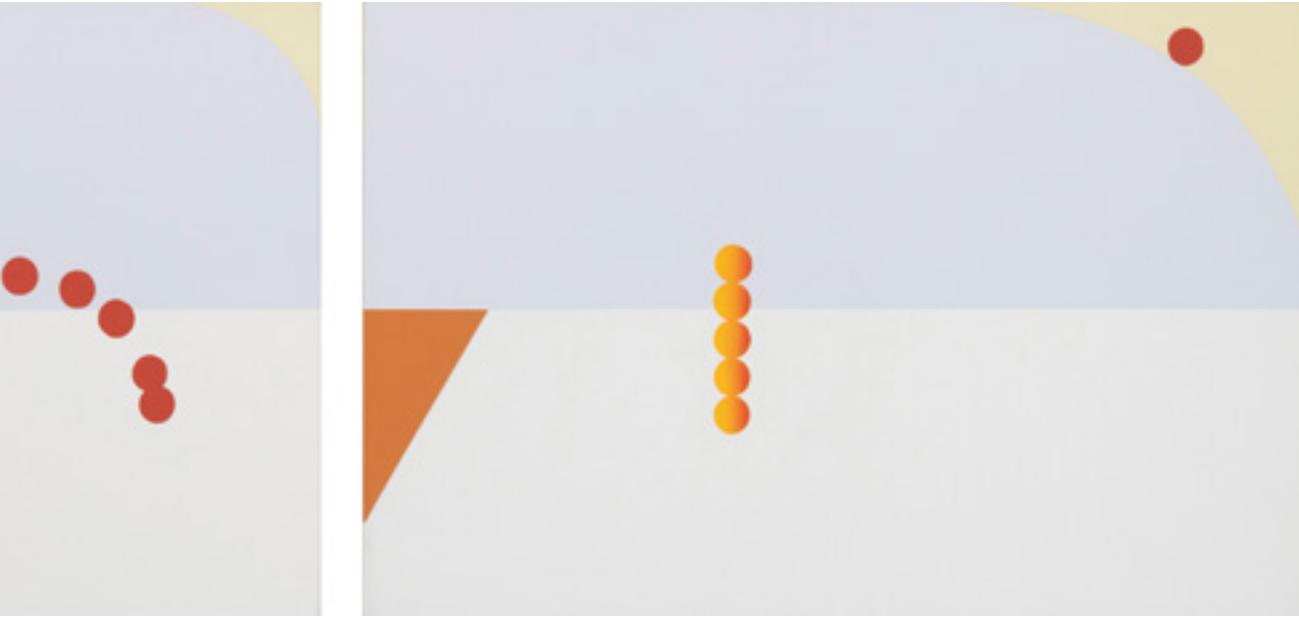
2020 고양아티스트 365_ Ripple Site, 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 고양
2018 미시감적 풍경, 갤러리 도스, 서울
2018 산책자의 공간, 유중갤러리, 서울

주요단체전

2020 모두에게 멋진 날들, 서울특별시청, 서울
2020 응집하는 눈, 임시공간, 인천광역시
2020 산책자의 방, 무악파출소, 서울



‹유연한 자리_04› 53x53cm, acrylic on canvas, 2020



‹유연한 자리_07› 33.4x144cm, acrylic on canvas, 2020

최재란 Choi Jaeran

38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석사

최재란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가득한 수원화성의 모습에서 핀 홀(pin hole)의 사진적 기법을 사용하여 잊힌 문화의 전성기를 희미한 기억의 잔상과 망각으로 표현했다. 팔달산, 숙지산에 버려진 채석장의 돌들에서는 `비밀스러운 추상의 세계'를 감정의 충만함과 정신의 무감각으로 인지한다. 사진의 역사적 측면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와 에드워드 웨스턴으로 이어지는 은유(metaphor)적인 표현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런 의도는 `자연법칙'에 역행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모습에서 인간이 만들었던 질서, 경계, 경직을 넘나들면서 대상을 발굴하는 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런 사고의 이면에는 한국인의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감각의 지평을 거느리면서 작가가 즐겨 찍은 산과 돌, 나무와 꽃, 성곽과 소나무 등은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이미지가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영원히 잊히지 않은 것으로 남겨진다. 최재란의 새로운 영감이 깃든 작품은 자연에서 몽몽한 소리를 엿듣게 되는데 그 소리는 인간을 넘어선 인간 이상과의 대화이기도 하다. 기존에 갖던 풍경에 대한 해석의 방법을 시간의 흐름으로 확장하고, 심오하고 숭고한 정신을 환기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석원(평론가), 「화성, 묵시의 풍경」(평론)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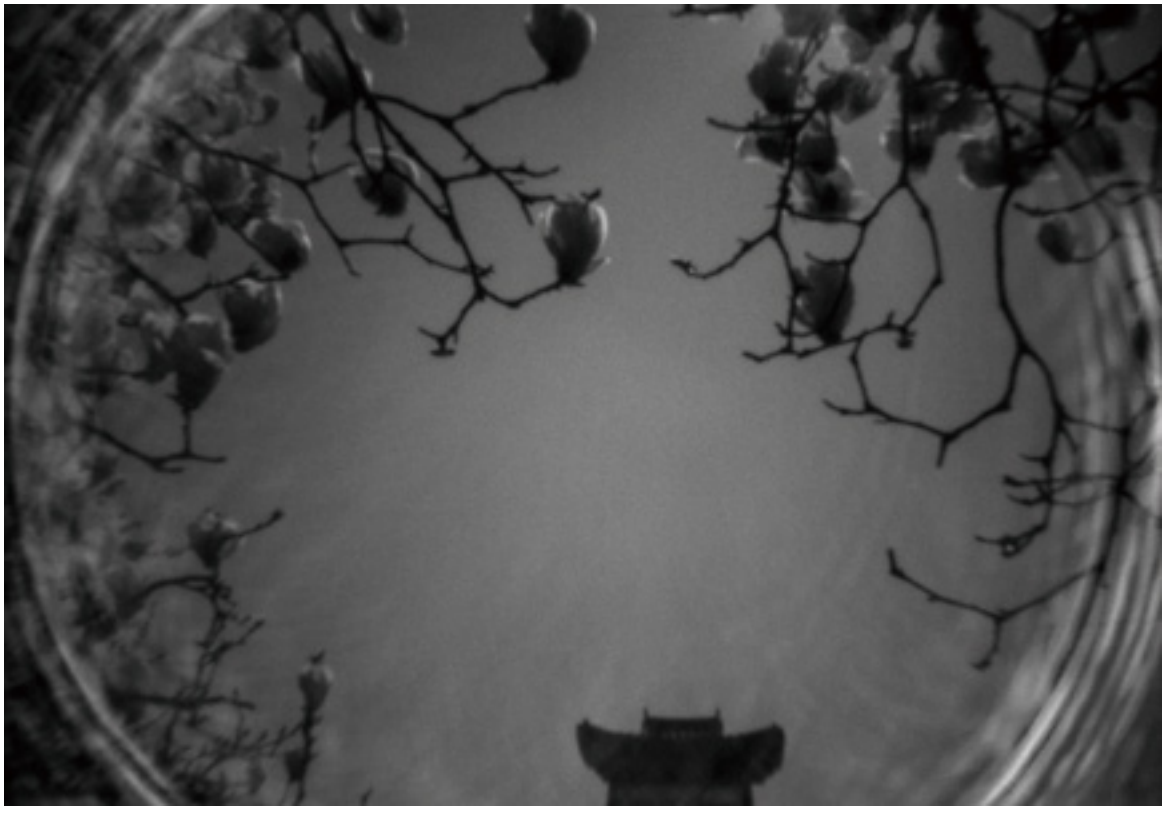
주요개인전

2020 화성, 묵시의 풍경, 행궁재갤러리, 수원
2019 Tears, DDP 알림2관, 서울
2019 화성, 언저리 풍경, 이데알레,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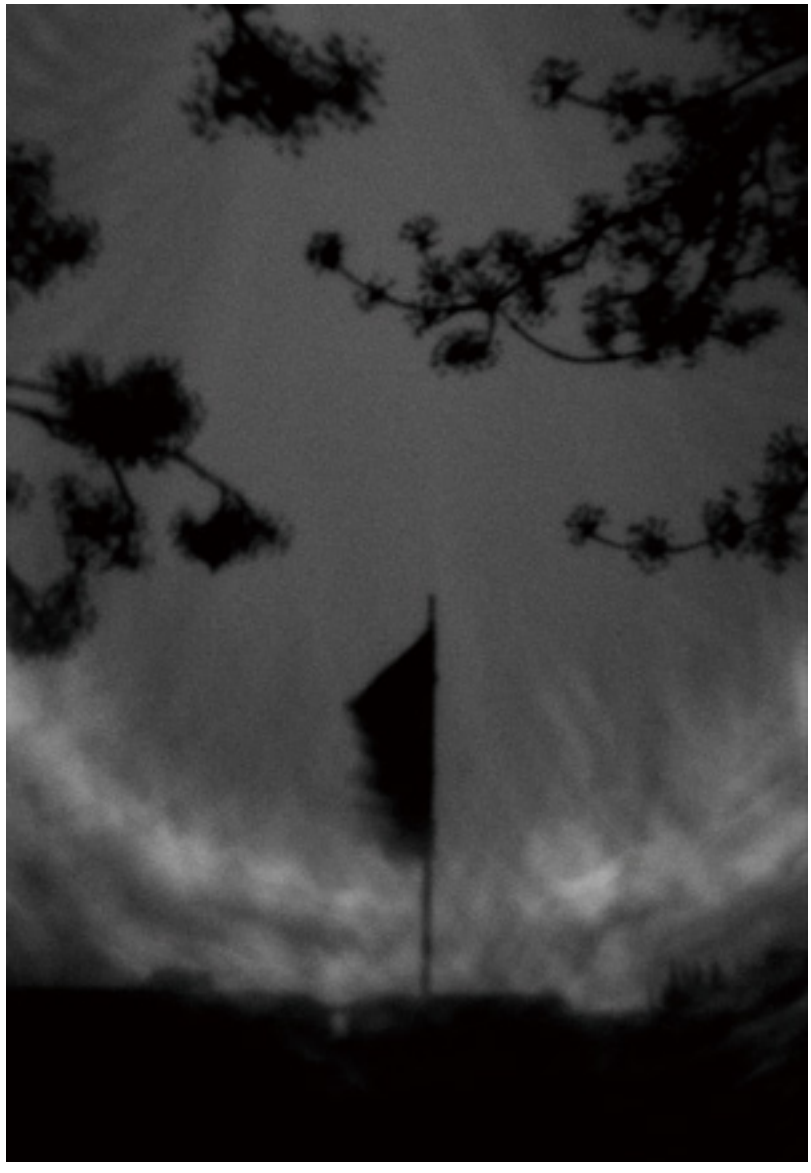
주요단체전

2020 경기여성작가회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
2019 경기도 포토페스티벌, 안성맞춤아트홀, 안성
2019 대한민국국제포토페스티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화성, 묵시의 풍경#001› 55x100cm, pigment inkjet print, 2018



‹화성, 묵시의 풍경p#004› 45x66cm, pigment inkjet print, 2019



‹화성, 묵시의 풍경p#005› 66x45cm, pigment inkjet print, 2020

최재혁 Choi Jaehyug

3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최재혁의 사물들은 우리에게 말을 건다. 최재혁의 그림들은 조용한 사물의 그림, 즉 정물화(靜物畵)라는 이름처럼 무척 조용하고 정직하다. 하지만 여기에 '말을 건넴'이 있다. 작품을 통해 작품 속 사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가 그 말을 듣도록 한다. 최재혁의 초기작은 거리에 놓여 있는 사물들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데서 시작되어, 이후 점차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점점 더 집중하게 된다. 사물이 모여져 있을 때 그것이 주는 힘, 우리가 그 모여져 있는 사물에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봤을 대 느끼는 힘을 정물로 포착하고자 한다.

최재혁은 물건들을 그리며 그 물건이 등장하게 된 시대의 배경과 사물의 쓰임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때로는 관람객들이 작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물들의 다른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풀어낸다. 모든 사물들은 제각각 쓰임을 갖는다. 그리고 각기 미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러한 사물들이 한 화면에 함께 있어 그 힘을 내보이는 것이 정물화의 특징이다. ... 최재혁의 정물화도 각기 사물이 갖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나 최재혁의 정물화에서는 사물 각자의 개별적 의미보다는 사물들이 작품 속 화면에 모여져 구성하는 시각적 효과의 힘과 그 인상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 효과의 망막적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최재혁은 사물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화면 속에서의 자신만의 정물적 형식을 만들고 있다. 사물을 지그재그로 배치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의 방식으로 사물들을 배치한다던가, 책가도(冊架圖)에서처럼 각각의 화면을 분할하여 거기에 사물들을 하나씩 배치한다던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 성실한 사물들의 묘사가 단순히 사물 그대로의 이야기를 재현(representation)'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재 반영(re-reflection)'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사물들은 작가의 손을 통해 화면에 재현되고, 이를 통해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달되고 이야기는 또 다시 만들어진다. 따라서 최재혁이 그리는 조용한 사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우리는 그 사물에 다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비추는 것이다.

— 전혜정(미술비평가)

주요개인전

2020 Still Life of Planet, 갤러리마리, 서울
2019 관계와 관망, 갤러리 2U, 서울
2017 사물(事物): 마음의사건 너머의 쓸모, 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주요단체전

2021 열정의 컬렉팅, 모나무르, 아산
2020 미래의 명장, 통인화랑, 서울
2019 RE-collection, 주워싱턴한국문화원, 워싱턴, 미국

‹Still life #61› 181.8x227.3cm, oil on canvas, 2019

‹Still life #55› 65.5x193.9cm, oil on canvas, 2019

‹Still life #54› 65.5x193.9cm, oil on canvas, 2019

최지현 Choi Jihyeon

40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강릉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학사

최지현은 2012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억'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첫 번째 개인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쌓이는 기억 속에서 '중요한 기억'이 어떻게 자리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모든 기억을 갖고 살아갈 수 없듯이 중요하지 않은 기억은 자연스레 잊히게 된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첫 번째 전시에서 말하고자 했던 '기억'은 중요한 기억, 잊혔지만 다시 살아난 기억, 평범한 기억 등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과정을 표현한 작업이었다. 삶에 있어 크고 작은 기억은 오늘의 '나'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조각이 된다. 첫 번째 전시 후 10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변했다. 첫 번째 전시는 기억에 집중한 작업이었다면, 지금의 작업은 그런 기억들이 모여 완성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주요개인전

2020 당신의 특별함에 대한 믿음, 카이스트 리서치&아트 갤러리, 서울
2019 Where are you?, 미나리하우스, 서울
2019 최지현 개인전, 갤러리 다함, 안산

주요단체전

2021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2020 Innermost, 갤러리가비, 서울
2020 Find Are, Find Me, 써포먼트 갤러리, 서울

‹환영› 53x45cm, 장지에 채색, 2021

‹함께 가는 길› 110x60cm, 장지에 채색, 2020

‹여유로운 시작› 90x90cm, 장지에 채색, 2021

허승희 Hur Seung-hee

4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석사

허승희는 서정적인 인물의 뒷모습과 절제된 자연풍경을 주요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인물의 뒷모습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해왔으나 자연과 사람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표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두 개의 주제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색을 어떻게 조화롭게 표현할지를 가장 많이 고민한다. 총 9회의 개인전과 20여개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왕성한 활동으로 작업에 대한 애정을 성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요개인전

2021 To my side, H Contemporary Gallery, 성남
2020 Untitled, H Contemporary Gallery, 성남
2019 Memories of you, 그림가게 미나리하우스, 서울

주요단체전

2020 브리즈아트페어, 안도(ANDO), 서울
2019 ADM 갤러리 그룹전, ADM 갤러리, 서울
2018 SEEA 그룹전, 성남아트센터, 성남

‹Long Time Ago› 162x130x4cm, acrylic on canvas, 2020

‹Season 7› 91x116cm, acrylic on canvas, 2020

‹Lcanus 2› 116x80cm, acrylic on canvas, 2020

홍진희 Hong Jinhee

4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공예과 학사

‘실’을 재료로 작업하는 홍진희 작가는 물감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다양한 느낌을 작품에 담아낸다. 때론 부드럽고 때론 거친 질감을 나타내는 그의 작품은 미세하고 섬세한 매력을 전한다. 그의 작품에는 치유의 의미를 지닌 ‘숲’이 등장한다. 숲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이지만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아픈 부분을 치유해주는 장소라 할 수 있다.
홍진희는 “내가 추구하는 작품세계는 치유와 함께 생명 존중과 장수의 기원”이라며 “실을 쌓아올리는 작업은 고되고 무수한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때문에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다”고 작가노트를 통해 밝혔다.

— 전혜원(아시아투데이 기자), 2020.02.19

주요개인전

2021 작은 숲, 돈의문박물관마을 작가갤러리, 서울
2020 당신이 그리워질 때, 갤러리가비, 서울
2019 봄, 날아올 피다, 대림창고 갤러리 컬럼, 서울

주요단체전

2020 제38회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2019 제5회 듀즈전, 이정아갤러리, 서울
2018 제36회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그리움이 짙어질 때› 65x91cm, cotton thread on canvas, 2017

‹어느 봄날 1› 30x40cm, cotton thread on Korean paper, 2020

‹어느 봄날 2› 30x40cm, cotton thread on Korean paper, 2020

GALLERIES

2021 아트경기 협력사업자

스튜디오 끼
올댓큐레이팅
칸 KAN
생강컴퍼니
(주)아트플레이스

스튜디오 끼 STUDIO KKI

studio Kki
gallery & auction

공간대관 예술인 발굴 및 저변확대와 미술작품유통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 경매쇼와 온라인 특화 아트쇼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스튜디오끼는 크리에이터이자 아트디렉터 이광기가 운영하는 파주 출판단지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의 기능과 함께 예술인 발굴을 위한 전시 및 경매쇼/아트쇼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예술활성화에 앞장서고 예술 생태계의 경제 활성화 및 세대별 예술인 인재양성을 확대하며, 자사 유튜브 '광끼채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21-2
031-8071-8822

kki.imweb.me
studiokki@daum.net

올댓큐레이팅 ALL THAT CURATING

All that Curating
미술기획연구소

2018년 설립된 올댓큐레이팅 미술기획연구소는 미술계 큐레이터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큐레이션을 하는 전시기획사입니다. 현대미술 전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미술계 네트워크를 쌓아가며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가 프로모션은 물론 다양한 예술 기획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내부 기획전에서 국가예술사업 및 아트 콜라보레이션까지 활발한 소통을 지향하는 전시 콘텐츠를 만들며 모두가 소통하는 아트플랫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atcurating.com
atcurating@gmail.com

칸 KAN

칸 KAN(Korean Art masterplan Network)은 기업의 미술품 관리 및 공간의 예술적 활용을 기획하는 창조기업입니다. 기업, 기관의 공간 조성을 위한 아트 마스터플랜 및 미술작품 기획 등 예술과 환경을 접목한 아트 마스터플랜을 지향합니다. KAN의 임직원은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건축, 영상 등을 전공한 아티스트, 디자이너, 건축가로서 각 전문분야의 협업시스템으로 공간과 환경에 예술성을 부여하고 창조적 사고를 지향합니다. 고객 기업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예술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적 가치임을 알리고 예술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20, 224호
02-536-7195

www.kanarts.com
www.officemuseum.co.kr
kanarts2021@naver.com

생강컴퍼니 Saengkang Company

예술과 공감연구소

‘예술과 공감연구소_생강컴퍼니’는 아트컨설팅과 지역연구 프로젝트, 청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컨텐츠 발굴 ‘송프란시스코’ 프로젝트(평택)부터 성남시 구도심을 탐구하는 ‘청년판 프로젝트’, 아티스트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우공이산 프로젝트’(안양). alo-book.com 프로젝트까지.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예술과 일상의 다양한 접점과 괴리를 발견하고 탐구합니다. 현재는 경기도 평택시 ‘협업공간_한치각’을 운영 중이고 스페이스 두치각 런칭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 11번길 9-2

hanchi.co.kr
alo-book.com
hanchi_gak@naver.com

(주)아트플레이스 ARTPLACE

ARTPLACE.

아트플레이스는 미술, 디자인,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국내외 전시, 학술심포지엄, 아트페어, 아트콜라보레이션, 출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아트컨설팅회사입니다. 2021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Korea Cubically Imagined, 글로벌 5개 도시에 펼쳐진 CONNECT, BTS, 실감콘텐츠 페스티벌, ART 369등의 전시 전략, 홍보, 운영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VR/AR/AI/인터렉티브 아트 등 실감형 콘텐츠와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기획하고 있는 아트플레이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경험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89
02-567-6070
artplace.co.kr
artplaceseoul@naver.com

PARTNERS

2021 아트경기 제휴사업자

오픈갤러리

서울옥션

오픈갤러리 Opengallery

OPEN GALLERY

국내 최대 미술품 유통 업체 오픈갤러리는 국내 미술계가 인정하는 인기 작가의 원화 그림을 작품 가격의 1~3%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림 렌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현재 약 1,200명 작가의 작품 38,000여 점을 오픈갤러리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픈갤러리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꿈꾸며, 그림렌탈 사업을 통해 미술품 유통시장을 혁신해나가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대중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수에게 주어진 기회로 역량 있는 작가의 활동 기회가 박탈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중과 미술이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75 헤이그라운드
02-1668-1056

opengallery.co.kr
contact@opengallery.co.kr

서울옥션 Seoul Auction

Seoul Auction EST. 1998

서울옥션은 199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미술품 경매 회사로 창사 이래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과 경매 기록에서 한국 미술 경매 시장을 리딩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한국 고미술과 근현대 미술은 물론 콜렉터블 아트, 와인, 보석,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경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동 본사와 강남센터는 물론 홍콩 전시장을 갖추고 있어 경매 외에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아카데미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일상 속 예술의 경험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64
02-395-0330
seoulauction.com
art@seoulauction.com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2021 아트경기

주최 경기도
주관 경기문화재단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2021. 10. 01.

총괄 주홍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기획 원준호, 최보경, 윤영돈
협조 정지선, 김범수, 윤가혜, 조담희, 김한솔

주소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7237~8
이메일 artgg@ggcf.or.kr
홈페이지 artgg.ggcf.kr

© 경기문화재단, 2021
ISBN 978-89-999-0208-6

• 본 도록은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발행하였습니다.
•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artGG

경기도 GYEONGGI-DO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비매품 / 무료

ISBN 978-89-999-0208-6